



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4년 5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14호

<http://www.snua.or.kr>

등창회 활성화

060-604-0011

전화 한 통화로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 璵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 FAX: 703-0755



동창회 20대 회장단이 인사드립니다 (3·4·5면)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6·7면)



孫一根산임부회장(左)에게 선임장 수여



洪性大상임이사(左)에게 선임장 수여



辛東一회관건립위 부위원장(左)에게 선임장 수여

맡든 논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青林, 李潤均, 南仲九, 金鎮綱,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龍, 安國正, 사립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裴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관악춘추

서울대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서울대 폐지론은 그 기세가 종전과 다르다. 결코 일파성 발언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국·공립대 통합전향과 공동학위제 등을 17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민노당 원내진출에 성공함으로써 「서울대 폐지」의 공론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새 국회에서 서울대 폐지문제 등을 다룰 교육개혁특위 구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회에서 여당인 무리당

과 제3당으로 부상한 민노당 사이에 개혁을 내세운 정책공조의 가능성이 커진 것도 주목할 요인이다. 서울대 폐지론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盧武鉉대통령의 「좋은 학교 나오시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 같은 발언도 예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물론 서울대 폐지론과는 무관하게 나온 발언이지만 명문대에 대한 대통령의 특이한 인식을 읽게 한다. 盧武鉉정부의 대정책들도 서울대 폐지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인상이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란 사실상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국립대 재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울대 폐지론」에 대처하자

대학에서 학점을 따고 졸업장에도 학점을 이수한 국립대의 총장이름이 병기되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국립대 간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서울대 위상이 추락할 건 뻔하다.

무한정정시대의 국가정정력은 고등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한국 최고로는 서울대는 지금 세계대학 행

킹 1백50위권 밖에 있다. 그런 서울대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자는 못갈림집 오히려 하향평준화의 표적으로 삼다니,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평등사회는 서울대를 끌어내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좋은 대학을 더 많은 분야에서 보다 많이 육성해 내는 것이 발전적 해법이다.

서울대는 국가정정력의 원천이요 상징이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는 의의는 서울대인들의 이기적 과장이 아니다. 서울대가 「세계 Top 10 대학」으로 오미하겠다는 건 서울대의 꿈을 넘어 무한정정시대에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국가적 지향이어야 마땅하다. 서울대는 사명감을 갖고 「서울대 죽이기」에 적극 맞서야 한다. 우리 23만 서울대 졸업생들도 그 투쟁의 동반자로 나서야 한다. 모교를 잃지 않으려는 애교심의 차원을 넘어 진정성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好)

동문칼럼

漢字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모교가 금년부터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공용어적인 한자를 신입생에게 교육시키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모교에 이어 경제5단체에서도 금년부터 각 회원으로 입사 시에 한자시험을 필수로 추가할 것을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영향력이 급신장함에 따라 한자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한자교육의 비중은 오히려 급락하고 있어 우리 나라는 어문학의 위기에 놓여 있다.

더구나 중국, 대만, 일본이 쉬운 한자를 상용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뒤질새라 정부주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때, 한국인 한자를 외면한 고립된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학술, 과학, 군사 등의 전문어를 이해할 수 없어 국민지식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漢字란 漢代의 文字 또는 漢族의 文字라는 뜻인데 한자는 漢代

전 이미 殷代로 소급된다. 어떤 민족은 문자보다 말이 먼저 있게 마련이다. 문자를 나타내는 우리말을 살펴보면 「글」이란 어휘가 있다. 한자에는 글에 해당하는 어휘로서 「文字」가 있으나 「文」과 「字」가 문자를 나타내기 전에는 「契」 곧 「契」를 썼다.契의 원형인 「契」(새끼)

자를 자세히 보면 나무(木)에 칼(刀)로 의 사교신 부호 十, 卅, 卅 위를 새긴 것이다.

이는 말을 한 종 자신의 기억 되살리기용 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자기(발언신자)와 특정·불특정 특정 사람들(청언신자)과의 쌍방 간 약속, 곧 契約 때문에 새겨놓은 것이 될, 곧 契이다.

그러므로契는 약속의 유효기간 전달수단(문자)이며 이를 수록한 고문헌인 說文에契를 「大約也」라 하였던 연유로 「木」 대신에 大約의 「大」를 부수로 삼은 「契」를 쓰게 됐고契가 바로 문자의 뜻이 왔다고 볼 수 있다.

契는 「계」란 음 외에 「글」이란 음(예:契丹)이 있다. 東夷(韓民族)가 한자를 창시했다는 설이 근래에 유력하게 거론되어 삼성이 굳혀져 가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동방문자(漢字)의 최초명칭인 「글(契)」이라는 말이 동방 여러 민족 중에서 유독 우리 한민족만이 유구한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그 문자를 창제했음이 뻔한데, 「글」이란 말을 「契」이라는 문자로 나타낸 민족이 누구겠는가? 결코 漢族이 아닌, 바로 韓民族이다.

契이 만들고 아직도 쓰고 있는契(오늘날의 한자)를 「韓契」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漢나라가 만들지도 않은 漢字를 이제 부러지도 게 이름 韓契를 되찾아서 그리 불러야 할 것이다.契의 名付觀(이름 붙여준 아버지)이며 창시자일수도 있는 우리가 漢字를 韓契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는가? 그 작업(漢字 뿌리찾기)을 우리 말고 누가 할 것인가? 漢族이 할 리 만무하고 王仁博士로부터 배운 大和族이 하진 못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세종대 왕에게 창제한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불러, 두 글의 명칭이 음상으로 일치함은 우연이 아니라 신의 뜻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표의문자 韓契와 가장 훌륭한 표음문자 한글을 병용하는 「最理想文字享有民族」이다.

우리 국어는 韓契(뜻글 70%)와 한글(소리글 30%)을 조화(한글 사용의 점진적 증대)와 韓契 사용의 불린 없는 한도까지 축소)시켜 두 글의 경쟁만을 구사하는 세계 으뜸가는 언어가 될 수 있다. 그 중대하고 시급한 작업에 우리 나라의 엘리트들 양성 배출하는 모교의 교수진과 학생 그리고 우리 동문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바란 다.



鄭 東 煥
(67년 行大院卒)
한국한자학문능력
검정회 상임고문



丘 月 煥
前세제일보
주필

지난 총선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못 달 전에 급조된 정당의 대승, 60%가 넘는 최선들의 국회입성, 여대야소 정국구도의 탄생 등등... 간단히 말해서 정치권 판각이 이뤄진 셈이다. 이런 변화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판각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할 것인가를 지켜볼 일이다.

여아들의 증폭으로 정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여대야소의 국회 판토도 보여 정국이 좀더 안정되리라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역

린우리당이 영남에서 괄목할 만한 득표를 통해 당당히 2등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盧武鉉대통령이 영남 출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 라는 점을 들어 이직 역시 신지역주의 현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호남에서의 한나라당 참패 역시 달랐다 대가 없다.

총선이 준 희망-지역주의 퇴조

사법권의 한 계단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볼 때 너무 비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희망적인 측면은 아마도 지역주의의 퇴조현상이 아닌가 한다. 굳이 퇴조라는 표현을 쓴 것은 흡사 바다에서 일어나는 조수현상처럼, 뚜렷한 변화를 확인하고 숙단하기는 어렵지만 대 지역주의는 거센 물결이 물러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최근 목포에서 열린 관공룡관 주회 총선 결과 세미나에서도 설왕설래가 컸던 대목이다. 지역주의가 과연 사라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런 사실은 지역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로서, 열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역주의는 아직도 견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총정권에서는 지역주의가 거의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金鎭鎭前지민원 총재의 말로가 이를 간단히 입증하고 있다. 또 수도권에서 나타난 득표현상도 지역주의 퇴조와 관련하여 시사점이 크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지역보다는 다른 기준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의를 개탄해 한 독자가 서울대총동창회에 특기장학금을 만든 일도 있지만 지역주의 문제를 세월에만 맡겨서는 안될 일이다. 사실 그동안 정치권을 휩쓸다시피 한 정치자금 파문도 따지고 보면 지역주의 정치도양에서 피어난 「악의 꽃」이 아니었을까. (본보 논설위원)

회장단 상견례 및 상임이사회 성료

부회장 선임·이사 5천1백76명 추대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4월 20일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20대 회장단 상견례 및 제14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뛰어난 역량과 실력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로 모범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 말하고 "이제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라고 자부하면서 모두 심기일전하여 동창회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지역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林회장은 부회

장 61명을 대표로 孫一振(51년 法大入·한국일보 상임고문) 상임 부회장에게 선임장을 수여했으며,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를 대



鄭憲泰회장 축사

표하는 洪樸大(63년 文理大卒·상신편원 이사장·본회 부회장) 상임이사회에 선임장을 전달했다. 또 본회 부회장 겸 회관건립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辛東一(58년 師大卒·성문통신산업 회

장)사대동창회장을 선임했다.

이어 모교 성악과 金銀應교수가 축가로 「오! 나의 태양(O Sole Mio)」, 「그리운 금강산」



건배 제의

을 선사했으며, 鄭元植교문이 새로 선임된 임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金在淳동창회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서울대의 주인은 재학생과 우리 동문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언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국에 대한 무한책임은 되새기면서 모교의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역설했다.

모교 수의학과 黃瑞勳교수 후원회 참석관계로 조금 늦게 자리한 모교 鄭憲泰교장은 회장에 모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화」, 「기초 강화」 그리고 「국제화」에 대해 소개하면서 동문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鄭憲泰장은 「국제화」와 관련하여 예일대와 맺은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6월달에 재학생 20여 명을 보내어 수주일 동안 예일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울대가 부분적으로 보자라는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일대와 한번 견주어볼 만하다는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만찬 중에 許 靑士부총장의 인연 악력소개, 동창회 자동차보험사업 보고, 모교 별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소개가 있었다. (하프7시, 19분 종료)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20대 이사에 총 5천1백76명(유임 1천2백49명 포함)을 추대했다. 본회는 지난 3월 19일 정기총회 이후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 이사 선임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새로 추대된 임원들의 인적 사항과 경력을 집대성하여 5월중에 이사회

부를 제자,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동창회 朴文基·李聖秀·鄭元植교문,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振 상임부회장, 尹勳熙·韓斗鎭·徐廷和·李曉熙·朴熙臣·李吉女·高炳旭·李世中·李相赫·鄭宗澤·辛東一·朴憲賢·金漢波·金宗鎔·李金器·孔大植·鄭永勳·李東星·沈利澤·朴柱仙·金明子·金基榮·辛鉉雄·鄭忠浩·鄭八道부회장, 朴英俊·朱成民장사, 許 靑士부총 등이 참석했다.

재단법인 관악회 洪樸大상임이사, 明泰社·安熙哲·朴明濟·金秉順이사, 상임이사인 成百齡교문 동창회장, 鄭憲王성철과학대동창회장, 吳源植치대동창회장, 金奎植대학원동창회장, 吳元勳 도시환경교과과정과과정동창회장, 南鉉鉉관악부역인회장, 梁在鉉 ROTC동문회장, 洪泰浩 前 ROTC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본보 논설위원인 모교 법대 金哲泰목포교수, 서연대 박현명목포교수, SBS프로덕션 林炯杓교문, 동아일보 南仲九목포교수, 서울신문 李慶奎이사가, KBS 金仁奎이사가, 호남대 徐植植목포교수, 한국경제신문 차원호논설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모교에서는 鄭憲泰회장, 白忠鉉대학원장, 金宇哲부총장, 黃仁京성철과학대장, 尹正一사범대학장, 李長茂 前교과 학장 등이 참석했다. (황)

동창회보 새롭게 변신! 지질 고급화·전면 컬러

본회는 「기다려지고 잊혀지는 동창회보」를 제작하여 동문 여러분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로 이번 호부터 내실

있는 편집, 용지 변경, 전면 컬러인쇄를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동창회보는 동문 상호간, 동교와 동창회간의 교류의욕을 충실히 살릴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나눔과 기부로 장학사업” 참여

본회 “자동차보험 유치사업” 개시

본회에서는 최근 기부문화 확산, 나눔의 생활 실천 등으로 많은 동문들이 타인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고 그 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동문들의 성원에 부응코자 자동차보험 유치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알려지는 수익으로 장학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동문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동창회 사업으로써 후회들을 사랑하는 동문들의 따뜻한 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교와 조국의 발전은 우리 후학들에게 달려 있으므로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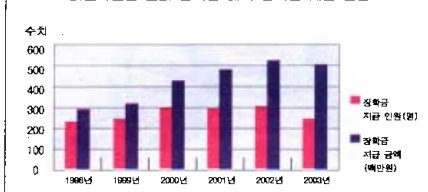
드립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참여가 자랑스러운 모교, 선진 조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견적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의 설계사 또는 대리점을 통한 모집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동문들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www.snua.or.kr)를 방문해 자동차보험 견적서를 작성 또는 전화로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 후 동문들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치 있는 자동차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회를 통해 가입이 가

능한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양화재, 쌍용화재, 엘지화재, 신동아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등입니다. 그동안 본회는 동문간의 친목 도모, 모교 지원, 장학사

최근 6년간 본회 장학생 대비 장학금 지급 현황



업 등 활발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장학사업에 가장 큰 역할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학금 마련을 기금의 이자수익에 의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수익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기금 이자수익은 줄어들어 장학사업에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인 자동차보험 유

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유망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본회 자동차보험 유치사업은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공신력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투명하며 동문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통해 동문들이 만족할 수 있고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 본회는 기금별 매출, 수익 내용 및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보험 계약자에 대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입자, 사업추진 결과 및 광고사항 등의 내용을 본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아내무의 : 서울대총동창회 보험사업팀 / 전화: 02-538-8173 ~4, e-mail: snua3000@snua.or.kr)

(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제20대 총동창회 회장단 프로필

명예회장 金在淳

51년
商大卒



前국회의장

명예회장 鄭雲燦

70년
商大卒



모교 총장

회장 林光洙

52년
工大卒



임광조건
회장

상임부회장 孫一根

51년
法大卒



한국일보
상임고문

부회장 李龍洛

53년
工大卒



재미동창회
명예회장

부회장 尹勳煥

54년
農大卒



농업생명
과학대학
동창회장

부회장 朴晟容

50년
文理大卒



글로벌아시
아나그림
명예회장

부회장 劉鍾海

54년
法大卒



명지대
석좌교수

부회장 韓斗鎭

56년
醫大卒



한국병원
원장

부회장 徐廷和

55년
法大卒



前국회의원

부회장 李奭熙

55년
法大卒



화동육영회
이사장

부회장 李海遠

55년
法大卒



한국우드
위드 회장

부회장 朴熙伯

57년
醫大卒



박희백
정형외과 원장

부회장 李吉女

57년
醫大卒



경원대
총장·의대
동창회장

부회장 金貞植

56년
工大卒



대덕전자
회장

부회장 襄命仁

56년
法大卒



변호사

부회장 閔丙峻

56년
師大卒



한국광고
주최회장

부회장 高炳佑

56년
商大卒



한국경영인
협회장

부회장 李龍兌

57년
文理大卒



삼보컴퓨터
명예회장

부회장 李世中

57년
法大卒



변호사

부회장 趙南煜

57년
法大卒



삼부토건
회장

부회장 張翼龍

58년
工大卒



(주)시광
회장

부회장 李相赫

58년
法大卒



변호사·
법대동창회장

부회장 鄭宗澤

58년
法大卒



충청대학
학장

부회장 辛東一

58년
師大卒



성문통신
산업회장·
사대동창회장

부회장 朴嬭實

60년
醫大卒



박산부인과
원장

부회장 金讚淑

60년
農大卒



청아치과
병원 이사장

부회장 金宗鎬

59년
法大卒



前국회의원

부회장 李金器

59년
農大卒



일동제약
회장·약대
동창회장

부회장 吳興祚

61년
農大卒



재미
동창회장

부회장 孔大植

60년
工大卒



대영테크
시스템 사장

부회장 郭永駟

60년
工大卒



도화종합
기술공사
회장

부회장 孫京植

61년
法大卒



CJ 회장·
모교 발전
후원회장

부회장 安秉勳

61년
法大卒



관악언론인
회장

부회장 尹世榮

61년
法大卒



SBS 회장

부회장 李相禹

61년
法大卒



한림대 총장

부회장 吳仁錫

62년
法大卒



Philip
Investment
회장

부회장 李惠星

62년
師大卒



한국청소년
상담원 원장

부회장 沈利澤

63년
工大卒



대한항공
부회장

부회장 許鎭奎

63년
工大卒



일진그룹
회장

부회장 洪性大

63년
文理大卒



상산하원
이사장

부회장 孫吉丞

63년
商大卒



SK그룹
회장

부회장 劉常夫

64년
工大卒



포스코
상임고문

부회장 趙炳祐 64년 工大卒 유종실업 대표 	부회장 許永燮 64년 工大卒 녹십자 회장 	부회장 李炯均 64년 文理大卒 한국신문 방송인클럽 회장 	부회장 崔秉烈 64년 法大卒 前국회의원 	부회장 卞柱仙 64년 師大卒 대림성모 병원 행정원장 	부회장 金英大 65년 法大卒 대성그룹 회장·경대원 동창회장 
부회장 朴容晟 65년 商大卒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 -상대동창회장 	부회장 吳 明 66년 工大卒 과학기술부 장관 	부회장 金明子 66년 文理大卒 국회의원 	부회장 鄭大哲 67년 法大卒 前국회의원 	부회장 金基炳 67년 行大院卒 롯데관광 회장 	부회장 辛鉉雄 68년 文理大卒 연세대 초빙교수 
부회장 文喜相 68년 法大卒 국회의원 	부회장 朴泳俊 68년 法大卒 코리아 리서치센터 회장 	부회장 玄在賢 71년 法大卒 동양그룹 회장 	부회장 洪錫炫 72년 工大卒 중앙일보 회장 	부회장 鄭夢準 75년 商大卒 국회의원 	부회장 鄭忠始 76년 工大卒 오미아 코리아 사장 
부회장 具本俊 78년 自然大卒 LG필립스 LCD 부회장 	부회장 柳 津 83년 人文大卒 (주)풍산 회장 	부회장 鄭八道 1기 AIP 코리아랜드 캄파니 대표 	감사 朴英俊 66년 商大卒 공인회계사 	감사 朱成民 73년 法大卒 변호사 	사무총장 許 瑄 68년 文理大卒 前농협 중앙회 사무 

서울대인 1백43명 금배지 달았다

학부출신 1백14명·대학원 11명·단기과정 18명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된 동문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3백32명의 동문이 지역구로 출마해 38%인 1백27명(정회원 1백11명, 준회원 16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으며, 비례대표 동문후보 46명 가운데 16명(정회원 14명, 준회원 2명)이 당선됐다. 이로써 재직의원 2백99명의 47.8%인 1백43명(정회원 1백25명, 준회원 18명)의 동문이 선량으로 뽑혔다. (7면 당선자 명단 및 현황 참조)

당선 동문 1백43명을 당별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67명, 한나라당 64명, 민주노동당 2명, 새천년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3명, 국민통합21 1명, 무소속 2명이다.

출신 대학별 동문수는 법대 49명, 문리대 17명, 사회대 14명, 상대 11명, 사대 8명, 인문대 6명, 행대원·AIP·ACAD 5명, 경영대·공대·SGS 3명, 농생대·대학원·AMP·AIC 2명, 자연대·경대원·사대원·산대원·한대원·HFM 각각 1명 순이다. (단과대 중복 졸업자의 경우, 먼저 졸업한 단과대 적용)

당선된 회수로 보면 초선은 비례대표 16명 전원을 포함해 74명이며 재선 30명, 3선 27명, 4선 5명, 5선 6명, 6선 1명이다.

열린우리당 康泰均(69년 商大卒·전북 군산)동문은 78.29%의 득표율을 기록해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최고득표를 기록을 세웠다. 또 8면6선2백70표를 얻은 열린우리당 蔡秀燮(78년 自然大卒·전북 진주)동문은 최다득표로 당선됐다.

이번에 당선된 동문 가운데 최고령(68세)은 한나라당 5선의 의원인 李相得(61년 商大卒·경북 포항남·울릉)동문이고, 최연소(37세)는 초선인 金命柱

법대 출신 49명으로 최다

康泰均동문 최고득표율

蔡秀燮동문 최다득표 기록

李相得동문 최고령(68세)

金命柱동문 최연소(37세)

여성동문 12명 당선 영예



林光洙회장이 金明子동문(左)에게 축하패 수여



鄭雲燮총장이 康泰均동문(右)에게 축하패 전달

(94년 法大卒·경남 통영·고성) 동문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선을 신고한 당선인은 국민통합21의 鄭夢準(75년 商大卒·울산)동문으로 2선5백67여 표를 얻어 당선됐다.

여성으로 열린우리당 金明子(66년 文理大卒·비례대표), 姜惠榮(70년 師大卒·비례대표), 李銀榮(73년 法大卒·비례대표), 趙增燮(79년 法大卒·전북 익산)을, 金希淳(28기 AIP·서울 동대문)을, 尹元昊(42기 ACAD·비례대표), 李美卿(7기

SGS·서울 은평)동문과 한나라당 金映宣(85년 法大卒·경기 고양일산)을, 李惠蕙(86년 社會大卒·서울 서초)를, 羅輝燮(86년 法大卒·비례대표), 朴禮燮(26기 AIP·대구 달성)동문, 민주노동당 沈相旭(83년 師大卒·비례대표)동문 등 12명이 의석을 확보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崔圭成(72년 法大卒)동문은 전북 김제·완주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고, 부인 李惠淑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게 됐다.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축하모임은孫一振상임부회장의 총선 당선 동문 연환보고에 이어 林光洙회장이 축사를 통해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 그리고 리더십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란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는 하나가 될 수 없을 지라도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지도자란 서울대인이 먼저 모습을 보이며 하나된 마음으로 화합하고 상생하여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 요지 참조)

모교 鄭雲燮총장은 '재물에 자유로워, 그것을 국정활동에 쓰시기 바라며, 시기에 자유로워, 그것을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쓰시기 바르다'고 말했다. 또 '민족의 대화가 세계의

林光洙회장 축사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제 17대 총선에 당선하신 자랑스런 선량 여러분! 23만 동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당선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도 지난 4월 15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짊어질 지도자를 뽑는데 소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역대 총선 가운데 초유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선거였습니다. 원스텝 치열한 '나는 총선 때마다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처럼 두려움과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였으며,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의 심판이다'라고 토로하였는데 여러분도 이 말을 실감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탄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서울대인은 전체의 석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1백43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정말 가슴 뿌듯하고 눈부신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인이 국정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부합하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 서울대인은 영원한 서울대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당에 속하든지 우리 나라의 최고 엘리트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정치 이념은 하나가 될 수는 없어도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지도자라면 서울대인이 먼저 모습을 보이며 하나

마음으로 화합하고 상생하여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총동창회는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을 주시하면서 여러분과 여한을 함께 해나가며 가까이 다가가는 동창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흔히들 요즘은 정치가를 정치꾼이라고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지요. 미국의 정치 개혁가였던 제임스 프린리 클라크



(James Freeman Clarke)도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이란 국정을 위해 정치하는 이들과 국정 책임자이도 정치꾼이란 오로지 총선의 승리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즉 국민 모두는 정치꾼이 아닌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한 표, 한 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표를 던진 주인공들, 그들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여러분을 선택한 국민들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건강하고 승승장구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망을 구축해 주고, 서울대 패지론을 펼치는 세상으로부터 모교를 보호해달라」고 덧붙였다.

모교 성악과 朴世源교수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축가로 노래해요.' 「희망의 나라로」 등을 선사했다.

모교 趙奎完전임 총장의 추대 재에 이어 林光洙회장이 본회 부회장 가운데 당선된 金明子·鄭夢準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했으며, 모교 鄭雲燮총장이 전 국 최고득표율을 기록한 康泰均동문과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된 蔡秀燮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외 본회 李吉女부회장이 여성동문으로서 당선된 李銀榮·趙增燮·金映宣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으며,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孫一振상임부회장,

尹勤煥·韓斗鎭·李麗熙·蔡命仁·辛東一·孫京權·洪性大부회장이 각각 단과대(원)별로 당선된 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했다.

한편 당선자를 대표해서 金德衡·朴禮太·韓和甲·金明子·康泰均·金雅榮·辛基南·鄭夢準동문들이 이리구동으로 「오늘은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총동창회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국민평안과 나라부강을 위해 봉사하는 정경을 통해 17대 국회의 질을 높였다고 다짐했다.

특히 朴禮太동문은 「모교 출신 당선자가 1백43명이 넘으니 모교를 위해 최다득표로 당선된 것이 자랑인데 제가 당수를 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모교가 영원히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대학당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유머러스한 소감을 피력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續)

	성명	정 당	성 명	출생연월	사망연월
북	남원·고금	열린우리당	李 康 求	84년 1월 28일	2
	진기·완주	"	崔 圭 成	72년 8월 1주	2
	고금·무안	"	金 權 模	1471 AIP	1
	목포	민 주 당	李 相 烈	75년 文壇大卒	1
	나주·합천	무 소 당	崔 仁 順	66년 法大卒	1
남	나주·곡성·장성	민 주 당	金 奎 順	72년 順大卒	2
	고흥·부성	열린우리당	山 仲 植	66년 文壇大卒	1
	영암·영암	"	郭 宣 浩	76년 法大卒	2
	무안·영암	민 주 당	楊 相 日	63년 文壇大卒	4
	회화·영광	"	李 濟 泗	74년 法大卒	2
북	고흥·함평	한 나 라 당	李 奎 模	3871 AIP	1
	무안·나주·함평	"	李 相 烈	61년 順大卒	1
	전주	"	鄭 德 福	74년 法大卒	1
	구례·전주	"	林 仁 順	5571 AMP	1
	구미·간성	"	金 德 福	5471 ACPD	2
북	영주	"	姜 倫 國	72년 順大卒	1
	영주	"	李 德 模	75년 法大卒	1
	산청	"	李 相 烈	62년 順大卒	3
	보령·영주·무주	신 무 당	李 錫 模	63년 順大卒	1
	전주·서천·영주	한 나 라 당	李 仁 順	78년 法大卒	2
북	곡원·여성·장성	"	金 在 辰	88년 順大卒	1
	영주·영주·영주·영주	"	金 光 元	63년 法大卒	3
	관음굴	민주노동당	崔 永 吉	69년 順大卒	1
	진주·김성	한 나 라 당	崔 祥 模	85년 順大卒	1
	지주읍	"	金 在 辰	87년 大體學卒	1
북	봉화·고성	"	金 命 柱	74년 法大卒	1
	경주·고성	열린우리당	鄭 德 福	96년 法大卒	1
	기회	한 나 라 당	金 洪 模	62년 法大卒	1
	남해·하동	"	朴 燾 玉	61년 法大卒	5
	신안·합천·거서	"	李 康 求	73년 1월 28일	4
북	북해·하동	열린우리당	姜 昌 一	80년 人本大卒	1

보건학 박사동우회

신임 회장에 南肅鉉동문 선임

보건학 박사동우회(회장 朴明熙)는 지난 4월 2일 대학로 상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1대 회장에 南肅鉉(64년 保人院 후-대구한의대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다.

또한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동문헌장을 비롯한 예세이, 논문목록 등이 수록된 보건학 박사동우회 20년사를 발간했다. 신임 南회장은 「지금까지 박사동우회를 탄탄한 조직으로 이끌어오신 역대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그 전통을 이어나간 소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안전 심의를 통해 대



장학기금(3천만원) 설치와 가결돼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대여장학기금이란 1인당 최고 3백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아 박사학위 취득 후 일급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치·외교학과

文昌克동문 초청 조찬 강연



정치·외교학과 동창회(회장 金勳)는 지난 4월 21일 소광동 롯데호텔 예매당룸에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앙일보文昌克(72년卒)은설주관을 특별연사로 초청, 「흔선 후 정국과 한

국의 잠재력」라는 주제로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보수 세력이 가져야 할 목표 등을 강연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文동문은 「이번 총선에서 보수주의가 패배한 것은 꿈이 없

었기 때문」이라면서 「패배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 주류세력이 나라를 위해 잘 해줄 것을 진심으로 바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金鎭泰(48년卒) 명예교수, 具範讓(56년卒)·朴鍾圭(61년卒)전임 회장, 宋復(60년卒)바른시민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동아일보 南仲九(64년卒)명화 연구소장, 한국신문방송인클럽 李炯均(64년卒)회장, 교통개발연구원 李富植(66년卒)원장, 문화 許璜(68년卒)사무총장 등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홍윤희

제26회 작품전

미대 출신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홍윤희(회장 韓瑤玉)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제26회 작품전을 가졌다.

이번 작품전은 지난해에 비해 회원참가자 10명 늘어 총 60여 명의 회원이 출품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됐다.

개막식에서 韓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는 각자의 정공분야에서 좀더 새롭게 변신하려는 몸부림」이라며 「이 전시회가 우리 동문들의 그림전지보, 전 미술계를 향한 우리들의 함성으로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속동창회

금속동문상 시상

금속동창회(회장 孟涉)는 지난 4월 20일 한국과학기술센터 2층 201실에서 정기총회 및 제25회 「자랑스러운 금속동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금속동문 심사결과 姜昌吉(71년卒·포스코 사장)동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姜동문은 포스코가 파이넥스(FINEX)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시상에 이어 올해 재료공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송우자 동문에게 금속동창회장상, 동창회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준 李東寧(61년卒·모교 명예교수)전임 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법대 14회

李鳴九동문 특강

법대 14회 동기회(회장 金福順)는 지난 4월 20일 롯데호텔 오닉스룸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李鳴九(60년卒·현양대 교수)동문이 탄핵정국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南)

의과대학

제5회 합춘대상·공로패 시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3월 29일 모교 연건평리 합춘회관 가전홀에서 정기총회 및 제5회 합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합춘대상 심사결과, 학술부문에 張潤奎(55년卒·마리아병원 명예원장·보교 명예교수) 동문, 의료봉사부문에 李鼎燦(56년卒·용인병원 유지재단 이사장)동문, 사회공헌부문에 金相仁(55년卒·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모교 명예교수)동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張동문은 85년 10월 국내 첫 시험관외 임신의 주역으로 우리 나라가 불임치료의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데 큰 기여를 마련했다. 李동문은 안암 중앙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권익보호와 무료진료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金동문은 우리 나라 진단 검사기구의 초석을 마련하며

일생을 혈액사업 장단에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李회장은 「의료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해 애써준 세 분의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의대인들이 계속해서 국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펼쳐나가기」고 말했다.

합춘대상 시상식에 이어 바둑대회 환승화에 애써준 姜文錫(83년 工大卒·동아제약 사장) 동문, 高在熙(57년卒·7단) 사범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동창회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준 朴熙伯(57년卒·박희백정형외과원장)·朴煥實(60년卒·박산부인과원장)·金鍾信(62년卒·동서울의원장)·魏正植(62년卒·덕산병원장)·金哲圭(64년卒·김철규소아과원장)·趙康熙(65년卒·서울백병원장)·孫孝正(70년卒·손신경과외원장)·許準珪(77년卒·국



앞줄 좌로부터 金相仁·張潤奎·李吉女·李鼎燦·李榮郁동문

군의무사령관)동문과 서울 서초구 지회, 한양대 의대 지회, 한강성심병원·분당재생병원 지회, 충청남도 천안시 지회, 14·25·38회 동기회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올 해 여성동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권 총회에 앞서 1층 회원 휴게실에서 제2회 합춘 미술전이 개최돼 咸台永(50년卒)·

金寶鍊(52년卒·김과과원장)·高幸三(57년卒·고이비인후과원장)동문 등이 출품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성근대 權壽勝(47년卒)이사장, 인제학원 白樂院(51년卒)이사장, 李賢宰(53년 廣大卒)前교무총리, 모교 李宗憲(63년卒)교수, 朴容植(68년卒)병원장을 비롯해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악화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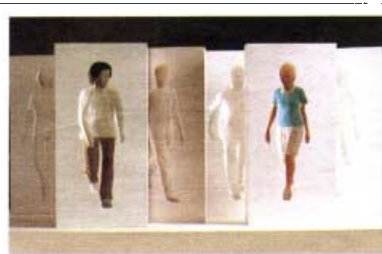
태니스실력 겨뤄

악화대학동창회(회장 李金鎬)는 지난 4월 18일 모교 귀악캠퍼스 테니스코트에서 친선 태니스대회를 개최했다.

뜨거운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A조 劉永毅(69년卒)·申珍奇(77년卒)동문, B조 朴世鎭(48년卒)·金洛斗(57년

卒)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李鎬植(49년卒)명예회장은 金祖炯(58년卒)동문과 짝을 이뤄 B조 준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태니스실력을 과시했다.

이날 경기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A조 준우승·李東石(62년卒)·李炳星(78년卒)동문, 3위·李東珠(88년卒)·서준익 동문 △B조 준우승 李鎬植·金祖炯동문, 3위 梁承龍(59년卒)·李民和(59년卒)동문.



李容德作

「걸어가는 사람들」
김화석고.

120×57×40cm, 2003.

<작가약력>

- ▲82년 모교 미술 초소과 졸업
- ▲90년 모교 대학원 졸업
- ▲배움터 예술종합대학 졸업
- ▲86년 제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 ▲87년 제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
- ▲88~89년 개인전 8회
- ▲현재 모교 미술 초소과 교수

수의과대학

특별을 찾아서

수의과대학 동창회

수의 임상교육·가축 진료 기술 '돋움'

장학사업 등 棟樑之材 육성에 헌신

수의과대학은 인간과 유대관계가 깊은 동물의 질병을 치료·예방함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고, 동물유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인간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수의사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성장해 왔다. 또한 최근 수의학이 생물공학과 접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 수의대 졸업생의 활동영역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과대학은 1907년 수원농림학교에 수의속성과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으나, 1회 졸업생만 배출하고 과거 폐지됐다. 이후 30년이 경과한 1937년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수업 연한 3년의 수의속산학과가 신설됐으며,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농과대학 수의속산학과로 다시 개편된 후 1년 뒤 농과대학 수의학부로 승격됐다. 1953년에는 수의과대학으로 개편됐고 동시에 교사를 종로구 연건동으로 이전했다. 이어 1965년에는 행정정부의 고등교육 간소화 방침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교사를 수원 캠퍼스로 이전하게 됐다.

수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74년에는 전국에 있는 수의학과를 폐지함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산설하고 교육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수의학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1976년 수의과대학을 폐지하고 수업 연한 4년제 대학으로 다시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수의학의 국내외적인 역할이 증가되고, 수의사 자질의 국제간 인증이 요구되어 1998년에는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다시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됐다. 2003년에는 수원 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교사를 이전했으며, 이는 단순한 이전이 아닌 과거 종합캠퍼스에 함께 있던 상재로의 환원이라 할 수 있다.

수의과대학 내에는 부속동물병원과 수의과학연구소가 있다. 부속동물병원은 1954년 부설가축병원에서 설치돼 소를 비롯한 각종 산업동물의 질병을 예방·치료하면서 수의임상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개업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진료 기술 증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임상교육 강화의 필요성, 동물 복지의 향상, 인간-동물 연대에 대한 인식, 양질의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7년 관악캠퍼스에 부속 수의동물병원을 개원하게 됐다.

수의과학연구소는 축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1982년에 설립됐다. 수의과학연구소는 생물공학과, 진보, 식물 및 의약품의 안전성

추진 증가, 신물질 개발의 가속화, 반려동물의 사회적 기능 증대 등 급격히 변화하는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학문연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 2003년 연구소 내에 무균동물 실험실과 질병진단 및 식품안전성실험실을 두고 업무의 내실화와 영역 확대에 힘쓰고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앞으로도 동물과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식품위생, 환경위생, 인간-동물연대, 실험동물의학, 야생동물 보전 및 복원, 생물공학 분야 등의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에 걸맞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글 : 權五鎭(75년 獸醫大卒)모교 수의대 부학장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건물



2003년 관악캠퍼스 이전을 기념하면서

■ 연혁

- 1908년 4월 25일 수원농림학교 수의속성과 개설
- 1909년 4월 10일 수의속성과 폐지
- 1937년 4월 1일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의속산학과 신설, 1944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교명 변경
-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개편
- 1947년 7월 8일 농과대학 수의속산학과에서 수의학부로 분리
- 1947년 9월 10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입학식 거행
- 1953년 4월 20일 수의학부에서 수의과대학으로 개편
- 1956년 2월 10일 부속동물병원 개원
- 1962년 3월 1일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개편, 수원캠퍼스로 이전
- 1976년 3월 1일 농과대학에서 수의학과 분리, 수의과대학으로 개편
- 1981년 9월 10일 수의학과 제2호관 신축
- 1982년 11월 17일 수의과대학 부설「수의과학연구소」설치
- 1997년 2월 17일 관악캠퍼스에 소동물병원 개원
- 1998년 3월 1일 수업 연한 6년(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개편됨에 따라 수의예과 입학
- 2003년 2월 12일 관악캠퍼스로 이전 및 산학공작 준공식 개최

수의과대학 동창회는 1952년 5월 3일 동창회 전신인 서울대학교 수의학사회를 창립하면서 시작됐고, 1953년 4월 20일 모교 명칭이 개편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로 개칭됐다. 1970년 10월 3일 모교 기구 개편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 동창회로 개칭됐으며, 1976년 10월 3일 학제 개편에 따라 다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의과대학 동창회는 수의학과 졸업자인 정회원, 모교 전·현직 교수인 특별회원, 학식과 명망이 높은 분으로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명예회원 그리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찬조회원으로 구성된다.

2004년 현재 회원수는 2천5백여 명에

고 있다.

모교 후배에 대한 장학사업과 후생복지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7년 12월 30일 제14대 동창회장장을 역임한 柳 弼 炳(58년卒)박사의 회사금과 동문들의 헌신적인 기부금으로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학재단이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발족했다.

2004년 1학기 현재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1명을 대상으로 약 1억원 가량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도 활발한 모교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바탕으로 후배들의 면학 의욕을 북돋우는 불문 장자 우리 나라 수의학계를 이끌어갈 棟樑之材를 육성하

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수의과대학 동창회 사무실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관악캠퍼스 85동) 5층(연락처: 02-880-1230, 팩스: 02-874-8952)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첫째 주에 모교 방문의 날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르며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수의학계와 관련 분야의 지원 활동, 모교 장학사업, 모교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문의 화합, 찬조금 등으로 운영되

동창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2003년에는 관악캠퍼스로의 환원을 기념하기 위해 모교의 새로운 교사에서 열린 본회가 학에 이전했다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2002년부터 정기총회를 통해 모교에 대한 지원 활동, 수의사의 위상 제고와 수의학의 발달에 공헌한 동문들을 선정하여 「자랑스러운 수의대인實」을 시상하고 있다.

현 16대 동창회장인 李 祐亨(62년卒·前국회의원)동문은 비록 의정활동에도 동창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교 교수들과 동문들을 수시로 만나 각종 연안을 논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동창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재미 동문들의 모임인 재미 서울대 수의대 동문회도 본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량이 우수한 수의사의 배출과 후배 양성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재미 동문회에서는 매년 여름, 일정한 수의 모교 대학원생과 학사과정 재학생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임상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동문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또 모교 신입 학장 내외를 동창회 행사에 초청하여 모교의 현인과 지원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모교 동창회 소식은 홈페이지(vet.snua.ac.kr/vetaalumni)에 게재하고 있다.
글 : 趙明行(65년 獸醫大卒, 모교 교수)총무

■ 연혁

- 1952년 5월 3일 현 동창회 전신인 「서울대학교 수의학사회」 창립
- 1953년 4월 20일 모교 명칭변경에 따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로 개칭
- 1970년 10월 3일 모교 기구개편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 동창회」로 개칭
- 1976년 10월 3일 학제개편에 따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로 복귀
- 1997년 10월 3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 1997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학재단」 설립
- 1998년 3월 2일 학제개편에 따라 6년제(예과 2년+본과 4년) 신입생 모집
- 2002년 10월 12일 제1회 「자랑스러운 수의대인」 선정
- 2003년 2월 11일 관악캠퍼스 85동으로 이전
- 2003년 2월 26일 6년제 졸업생 첫 배출
- 2003년 10월 18일 제2회 「자랑스러운 수의대인」 선정

ROTC동문회 梁在鉉회장

신임 동창회
임명부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동창회 朴室相회장

“알찬 친목사업으로 기금 확충”

지난 4월 9일 ROTC동문회 회장 취임 2개월째를 맞이한 건축사사무소 건원 梁在鉉(69년 工大卒)회장을 만났다. 梁회장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면서도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취임소감을 밝힌 뒤 “ROTC동문회가 친목단체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는 리더십집단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기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문회 소개를.

“서울대 ROTC는 지난 61년 창설됐지만 동문회는 30년 뒤인 92년도에야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45기까지 9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선훈보 金大中(63년 法大卒)부사장, SK그룹 孫吉丞(63년 商大卒)회장, 洪淳煥(66년 文理大卒)前육군 2군사령관, 鄭夢準(75년 商大卒)국회의원이 ROTC 출신 동문입니다.”

—ROTC동문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있다는 것과 상하질서관계가 살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땀흘리며 고생했던 공통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동문회에 비해 결속력이 높습니다.”

—올 한 해 활성화 방안을.

“재미있고 유익한 모임을 자주 갖는 것일텐데, 그 전에 충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홈쇼핑매이, 골프대회 등 기존 친목사업을 좀더 재미있게 기획해 동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럴 때 재정문제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ROTC 지원동기는.

“특별한 동기는 없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한 친구들이 지원하길래 따라 갔습니다(웃음). 군 생활은 1사단에서 했고 군번이 늦어 처음엔 보병 소대장직을 수행하다 나중에 대대 참모



를 했습니다.”

—건원에 대한 소개를.

“대형프로젝트, 도시·단지계획, 재개발/재건축 초고층주거단지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분당 신도시, 전경기념관, 천안역사, 잠실4단지 재개발 설계를 했죠. 그밖에 엔지니어링 사업, 개발사업(펜 퍼시픽)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5백명 정도 됩니다.”

—동문들에게 한 말씀.

“동문회가 친목단체로서의 탈을 벗고 국가와 민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의 해리리제단을 모델로 삼아 사회 각 분야에 폭넓은 조언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커 나가는데 발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문들의 역량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梁회장은 1946년 서울에서 출생, 서울사대부고를 거쳐 모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다. 그 후 한양대 도시공학과, 서울시립대 도시계획과 강사를 역임했으며, 1984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을 창업했다. (南)

“회원의 국제감각·안목 키울 터”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국제 교류시절단을 구성해 선진국의 산업현장들을 방문하며 상호교류를 증진시키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문들 상호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문 명부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조인트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건축자재 중에서도 배관 파이프 이음새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시장 점유율이 60%나 되며 줄곧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동문들에게 한마디.

“많은 동문들이 각 사회 분야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동창회에 헌신하며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에서 지식이나 부를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량하게 사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문들과 유대를 넓혀 가는 것도 우리 동문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창회 중점단과 경조회를 구성해서 아픈 이들을 찾아가 노년로서 위안을 해주고 경조사 때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차회장은 1970년 4월 건축자재 전문 생산업체인 ‘남성사’를 설립하고 1985년 4월 남성이기 법인화되면서 대표이사를 맡게 됐으며 2001년 월드조인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1994년 1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벤처기업인의 대표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李)

지난 3월 26일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동창회는 LG강남타워 ORIOX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朴室相(9기 AIC·월드조인트 사장)동문을 선임했다. 이에 차등문을 만나 최근 근황과 동창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신임 회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여러 모로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교 동문들의 인적 교류나 활성화가 타 대학 동문들에 비해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모교의 위상에 걸맞는 동창회 위상을 재정립해야 되며 이를 위해 적극 적극 나서서 가장 모범적인 동창회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만들 생각입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구상하고 있는지.

“동창회 활동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동문간에 화합이 가장 우선 시 돼야 겠죠. 이를 위해 동창회 내에 장학회, 경조회, 중장년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문들이 주로 일선 산업에 종사하는 CEO를 비롯한 회사 중간들로

동문기자 취재수첩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돈을 쫓아 다 녀서는 안 되더라도, 돈이 사람을 따라 가지...』 이 말은 그대로 기자한테도 통한다. 『특종을 쫓아다니니까 나오나』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백 퍼센트 진실은 아니다.

진실 하나
YTN에 『진드기』 혹은 『진드개』라고 불리는 후배가 있다. 별명에서도 짐작하겠지만 교집이 대단한 기자다. YTN 기동취재부의 金承在 기자다.

지난해 8월 금기자는 적십자사의 관리 부실로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병원에 공급돼 60대 2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보도를 했다. 믿었던 혈액관리과 한기자로 영터리라는 충격적인 보도였다.

그 뒤 금기자는 8개월 동안 무려 20 회가 넘는 수첩 관련 보도를 했다. 『적십자사, 수첩 감염자 축소 의혹』 『신생아, 수혈로 B형 간염 감염』 등 연달아 굵직한 특종을 터뜨렸다.

헌터 특종하고 나면 추측보도에 소홀한 것이 기자들의 일반적인 모습. 금기자의 연속보도에 선배들이 볼 때도 부러울 정도로 집요하다. 피만 보면 달려드는 『홀릭귀』. 금기자의 새로운 별명이다.

진실 둘

지난해 7월 9일이다.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 옥실에서 모 부대 금모 일병이 몸을 던졌다. 경기침체 때문인지 세대 탓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자살은 별로 기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 이 사건도 그냥 그런 자살중의 하나로 지나가게 됐다.

사건 다음날, 평소처럼 출입차인 경기도 2청사로 갔다. 연세나 그릇도 소용했다. 누구하나 어제 자살사건을 입에 담지 않았다. 벌써 잊혀진 사건이 된 것이다. 그때 고등학교 후배인 한겨레신문의 金東勳 기자가 말을 꺼냈다. 『형 어제 자살 있었어요. 그거 원인이 밝혀졌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거기 어디서 수사하지?』 『글쎄요. 영안실이 바로 요 옆이라고 하는데...』 심심한데 한번 가보지요. 출발은 이었다.

금기자는 어제 사건 직후 경찰이 금일병의 친구들 몇 명을 조사했는데 친구들이 영안실에 있을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만 알아보고자 했다. 병원 영안실을 썰렁했다. 유족들 몇 명과 군 관계자들만이 서성거렸다.

영안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문밖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모두들 침울한 표정이

林秀根

(87년 人文大卒)
YTN 사회2부 기자



였다. 먼저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친구들은 얼굴부터 찡그렸다. 어제 경찰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뿐이었다. 친구가 이미 숨졌는데 어제 말을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냐는 말이었다.

대뜸 후에 금기자가 화를 냈다. 『야, 우리가 여기 놀러 온 줄 알아!』 『놀러 온 것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 온 것도 아니네...』 속

으로 생각했다. 계속된 설득에 그제야 친구들이 입을 열었다. 자살 전날 휴가를 나온 金일병과 밤새 술을 마셨는데 부대 고참들 몇 명이 자꾸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서 부대로 돌아가기가 싫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친구들 말대로라면 金일병은 고참들의 성추행을 피해 자살을 한 것이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친구들의 말만 믿을 수는 없는 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친구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뭐 나온 거 있어요?』 『없어! 그냥 자살사건이지 뭐』 예상대로다. 군대내 성추행 사건을 경찰이 알려 줄리가 만무했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서 집단 성추행 폭격...자살』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리포트를 나가지 먼저 전화를 해 온 것은 국방부였다. 『군대 내에서 무슨 성추행이 있었는 거요?』 『도 성추행이 있다 하더라도 군의 위상을 그렇게 부끄럽게 공개하 하겠소!』 그러나 해당 부대의 말은 달랐다. 『집단은 아니에요, 성추행을 한 상병 한 명을 불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단이 아니라 한 명이라네요!』 보도 다음 날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군대내 성추행 통계를 발표하고, 중령이 사병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발표하는 등 감추어져 있던 군대내 성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앞서의 얘가 끈질긴 추측 보도의 중요성을 말해주다면 뒤의 예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언젠가는 보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인사 취재, 괴롭고도 괴로운...

鄭維權 청의대 인사수석이 필자의 전화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남 기자, 거 머저 빨리 안다네 게 도대체 우리 사회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요』 인사내용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옳은 말이다. 발표한 뒤 쓰면 그만이다. 오묘의 위험도 없다.

그러나 취재기자는 그 몇 시간에 천덕과 지옥을 오간다. 몇 시간 빨리 쓴 타사의 인사특종기사에 한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몇 시간 빨리 쓴 내 기사에 홀로 화상실에서 웃는다.

鄭수석의 말을 심문 인정해도, 작어도 기자 중에서는 인사취재가 취재의 백미인데 이걸 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대통령의 형은 인사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장관을 취촉하려 할 수 있는 것도 인사 때문이다. 또 장관이 개각대상에 올랐다면 그 장관이 있는 부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뭔가 다른 숨겨진 일이 있다는 얘기가, 정확한 인사취재는 그러한 『숨겨진』 내막에 좀 더 접근했다는 보증인 셈이다.

하지만 기자들에게, 인사취재는 괴롭고도 괴롭다. 친한 취재원들도 인사 문제 만큼은 입을 닫기 일쑤고, 정보도 늘 부족하다. 필자는 2003년 대통령직 인사취취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청와대에 국민일보 2인으로 출입했다.

주요 인사들이 돌아오면 기자실에서 한숨이 터져 나온다. 연세 『물』 역을 지 모른다는 불만감에서부터,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체 잡에 들어가는 다 불렀다는 괴로움까지 겹친 한숨이다.

기자들은 농담 삼아 인사취재를 『짜 맞추기』 『스무고개』 『숨은 그림 찾기』에 비유한다. 인사들이 돌아오면 기자들은 『자! 다시 짜 맞추기 시작해라!』라며 서로를 격려한다.

참여정부 첫 초창 때의 일이다. 대부분 장관의 유래가 드러났지만, 교육부 총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다. 결국 첫 조각발표에서 교육부총리는 빠졌다. 첫 조각발표일 오후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모 취재원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당시 교육부총리 후보로 李聖衡·尹德弘·吳 明 등이 거론되던 때다. 취재원은 『연대 총장을 주시하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필자는 후속기사에서 『김우식 연세대 총장 교육부총리 유력 거론』이라고 했다.

당시에는 맞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기사는 결국 오보로 판명됐다. 필자는 金雨植 후보를 치고 나갔지만, 막판에 『전정은 김우식 경합』 『전정은 유력』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임명됨으로써 대형 오보를 날린 셈이 됐다. 유력 취재원의 『워딩』

南度榮

(96년 社會大卒)
국민일보 정치부 기자



을 확대 해석한 참담한 결과였다.

연세대 金雨植총장이 다시 필자의 기사에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였다. 文藝相비서실장의 사퇴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기자들의 관심은 후임 비서실장에 집중됐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순한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朴世逸·金東宰·尹聖衡·李憲宰 등의 이름이 거론됐다. 짜 맞추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뢰할만한 취재원으로부터 金雨植총장의 이름을 다시 들었다. 지면에 얹힌 뒷이야기와 함께

였다. 문제는 기사화였다.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몇 곳의 취재원들로부터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金雨植총장과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金총장은 부인했다. 金총장의 부인파도 통화했지만, 역시 부인했다. 본인이 부인하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쓸 수는 없었다. 결국 『김우식 비서실장 거론...』으로 박스기사가 나왔고, 일주일 뒤 金總장의 비서실장 내정 사실이 알려졌다.

또다시 인사들이 돌아오고 있다. 지금쯤 순한 기자들이 짜 맞추기와 숨은 그림 찾기에 돌입했을 것이다. 기자들만 바빠진 것은 아닐 것이다. 장관을 꿈꾸는 수많은 후보자도 물론 작업에 들어갔을 것이고, 장관과 수석과 공기업 사장을 골라야 할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도 막후 작업이 한창일 터이다. 당연히 이들은 입을 닫을 것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아 필자 들은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몇 년간의 인사취재를 통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 『국회의원 되려면 논문쟁이 같아라』 타고나야 한다는 얘기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는다. 그러한 자격을 골라내는 능력, 그런 자격을 들여내는 능력, 그런 자격을 엿볼 수 있는 취재가 어우러지면 우리는 이번 인사에서 좋은 인사권자, 훌륭한 내정자, 훌륭한 기자를 볼 수 있을 듯하다.

그 모든 이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박수를 보낸다.

화제의 동문

테크소프트 金太業사장

“麻將(마작)은 도박 아닌 두뇌스포츠”

MIT박사 출신으로 마작게임 개발



재미를 절묘하게 결합한 게임입니다.

金동문은 해운회사를 나온 후 87년 테크컴퓨터라는 회사를 세워 '위너'라는 유권자 관리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제품은 괜찮았지만 시장이 워낙 좁아 돈벌이는 되지 않았던 것. 그 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마작게임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

여기에는 학문적 욕심도 작용했다. 97년 세계 체스 챔피언과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 딥블루의 대결을 보고 난 후, '체스까지 컴퓨터가 이겼는데 마작은 어떨까'하는 호기심이 든 것. 미국 MIT에서 알고리즘 전공으로 경영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로서는 꼭 풀고 싶었던 문제였다.

지난 2002년 오랜 연구 끝에 마킹이란 인공지능을 온라인 마작게임을 드디어 시장에 내놓았다. 마킹은 세계 마작협회인 일본의 이데오 오스케를 보기 좋게 눌렀다. 이를 계기로 정보통신 부로부터 우수신기술로 지정받기도 했다. 현재 온라인으로 배타서비스 증인에 가입된 사람이 35개국 2만1천명에 달한다.

金동문은 지금의 테크소프트가 있기까지 동문 선배들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宋錫雄(63년工大卒·서림기전개발 대표)·趙煥祐(64년工大卒·유종실업 대표)·李宗滿(65년工大卒·삼호개발 회장)등문이 전체 자본의 30%를 투자해 큰 힘이 됐다고.

물론 일본, 중국시장에 마킹 모바일게임, 온라인게임, 패키지, 전용기계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金동문은 "오랜 준비로 마작게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과 불어도 자신있다"며 "이곳에서 수익을 올려 국내 마작보급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마작인구는 약 20만명입니다. 중국 3억, 일본 3천만명에 비하면 아주 적지요.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모교 동문대회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고 인텔리 그럽인 우리 동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게임이 마작입니다. (南)

「마작」하면 도박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2008년 북경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하려고 할 정도로 스포츠로 인정받은 게임입니다.

테크소프트 金太業(72년工大卒)사장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게임분야인 麻將(98년 중국정부가 마작에서 마작으로 명칭 통일)에 흠뻑 빠진 동문이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마작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마킹(Mahking)이라는 마작게임을 개발하고, 세계 마작협회인 일본의 이데오 오스케와 공동으로 세계마작협회를 설립해 마작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75년 병양상선에 입사한 金동문은 선원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마작을 접했다. MIT유학시절 「포커의 왕」으로 불렸던 그는 비록 아마 4단이다. 그런 그가 지적 유희의 결정판이라는 마작에 빠진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선원들의 경우 오랜 시간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마작을 즐깁니다. 변화무쌍하고 동적이라는 점에 마작의 매력이 있지요. 마작은 비록 포커의

동문기고

거리박사(?)의 외침

「X자식!」 택시를 타고 갈 때 가끔 기사아저씨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다. 사람이 갑자기 위협하게 접근해 올 때의 위험경고다. 거칠고 상스럽지만 목숨을 구하는 한마디 말이다. 나는 기사아저씨와의 대화를 즐기는 편이다.

전문적인 것은 지식은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 대해 아주 박식하다. 많은 시간을 「라디오」와 같이 지내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 박식하다. 또 여러 종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늘 태우고 대화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거리의 박사」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박사님」들과의 대화가 참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많다. 그들이 예전과 달리 짜증을 잘 내고 말쑥하게 거절해가기 때문이다. 하루 열 시간 이상을 좁은 공간에 꼼짝없이 갇혀 있으면서, 사고 날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라디오에서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는 뉴스와 시사해설은 그들의 신경을 더욱 건드린다.

정지한단시고 수심억, 수백억 원의 천문화적인 돈을 주고받는

높은 이들의 부정한 일들, 민생을 위해 각정은커녕 이권과 권력을 위해 티격태격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 모습, 노사의 극한 대립과 과격한 시위현장, 탈바박을 땀도는 경기장제와 천장모르게 뛰는 아파트 값, 실직

실업과 생활고를 못 이겨 방황하며 심지어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까지 잃는 끔찍한 사회상.

그런인가. 거리박사들이 밤마다 마주치는 밤거리의 팔사나운 광경들—하룻밤의 환락을 위해 수십·수백만원의 돈을 물 쓰듯 쓰며 酒肉에 빠져드는 졸부들—거리박사들의 정신이 돌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얼떨결에 「아저씨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소?」라고 반문했더니 「이놈의 택시를 꼭 다 끌어버려야 고쳐지지 않겠소!」라며 「민족말살」을 들고 나온다. 참으로 섬뜩하고 끔찍한 말이다.

이 슬픈 사회상과 나라꼴을 눈앞에 두고도 「나 몰라. 하며 권력과 사욕에 노련 사악한 지도층과 최고학부에서 진리와 사회정의를 배우고 귀한 학·박사 학위까지 받고서도 올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지식층들의 비겁함과 무기력함에 힘의하는 「거리 박사의 외침」을 나무랄 수가 있겠는가!」



朴永福

(50년 韓大卒)

부산대학교원 원장

서울대 가족

全相伯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두 아들·사위와 함께 공학분야서 맹활약

회갑·교회원 기념 가족 에세이집 펴내기도



앞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全相伯·全炳宇·李銀卿, 한 옆 건너 李 행동문

각 가정마다 족보 하나쯤은 가물고 있기 마련이다. 조상이 누구이며, 몇 대 자손인지, 자신의 뿌리를 찾는 소중한 재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조께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들에 대한 삶의 발자취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2002년 全相伯(57년 工大卒·86년 慶大院卒·(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동문은 자신의 교회원 기념식에서 가족생활 에세이집 「살며 생각하며」를 발간해 자녀들의 가정과 친척들에게 나눠줬다.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작은 감상들,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들과 강의 내용, 손자들의 편지와 복후갑까지 全相伯동문 가족의 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족보인 셈이다.

「전부 정도를 주문하고, 각 가정마다 많이 남을 정도로 들렸습니다. 훗날 증손자가 이 책을 읽으면 '아, 나의 증조부께서는 이러한 철학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며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全相伯동문은 이렇듯 회갑을 맞이했을 때도 자신의 건축에 대한 철학, 그동안

의 설계 작품, 가족 사진과 재미난 글들이 담긴 「時間과 空間」이라는 제목의 기념집을 발간하며 가족이 걸어온 발자취를 남기고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왔다.

모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全相伯동문 가족 중 장남 全炳宇(85년 工大卒·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동문, 홍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차남 全炳圭씨, 한양대에 전산학과를 졸업한 작은 사위 朴勝久씨, 초조카인 鄭應珠(81년 工大卒·홍익대 기계공학과 교수)동문까지 모두 공대 출신인데다 큰며느리 李銀卿(85년 韓大卒·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동문과 사촌의 아들인 全炳秀(86년 自然大卒·다우코닝코리아 이사)동문도 모두 모교를 졸업했다.

「집안에 고칠 게 있으면 굳이 A/S를 받지 않아도 각자의 취미와 전공이 그 분야이기 때문에 모두들 팔을 걷고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큰 사위(李 行·88년 韓大卒·우리가정의화학회원 원장) 역시 전공 분야는 다르지만 조선일보, 과학동아, 대한기정의학회보, 고양신문

등에 많은 글을 기고하며 손으로 쓰는 재주가 뛰어나 우리 집 남자들은 하나같이 만들고, 고치고, 짓고, 쓰는데는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등을 거쳐 지난 1979년 지금의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한 全동문은 25년간 외길 인생을 걸어오며 그동안 국가 기간 시설(SOC)인 철도, 지하철역사, 통신·우편시설, 위성관제시설, 식물·의약품 안전성 및 독성시험 연구소와 고층아파트, 초고층 사무소 건축계획 분야의 사업을 꾸준히 선도해왔다.

IT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장남 全炳宇동문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교육부 국비유학생으로 미국듀테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성균관대 교수로 또 지난 3월부터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신성장 동력 사업 중 디지털TV담당 프로젝트 매니저로 맹활약 중이다. 학창시절 동여미 활동을 통해 만난 부인 李銀卿동문은 비올라를 전공,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국 인디애나주 Lafayette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현재 성남시립교향악단에서 활발한 음악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李銀卿동문은 적극적으로 쾌활한 성격으로 「살며 생각하며」 에세이집에 재미있고, 재치 있는 글을 올리는 등 뛰어난 글재주를 자랑한다.

全相伯동문 가족의 또 다른 특징은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면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들이 잘 코드를 탄 지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뿐,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자유를 보장해줬습니다. 대신 가족들과 잔잔한 추억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잦은 해외출장으로 全동문은 집에 돌아올 때면 자녀들에게

全相伯대표의 서울대 가족

장남

全炳宇(85년 工大卒)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

며느리

李銀卿(85년 韓大卒)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

사위

李 行(88년 韓大卒)

우리가정의화학회원 원장

차남

鄭應珠(81년 工大卒)

홍익대 기계공학과 교수

종질

全炳秀(86년 自然大卒)

다우코닝코리아 이사

그 나라의 우표와 엽서, 작은 지폐와 동전을 가져오곤 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우표와 엽서수집에 취미를 갖게 됐고, 훗날 장녀는 그동안 모아왔던 우표책들을 자신의 딸에게 물려주는 특별한 순서(?)도 마련했었다고. 또 여행 중 찍었던 사진들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여행을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주곤 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건포마찰, 등산 등으로 건강을 유지해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를 때면 무엇이 되라는 말보다는 자연을 사랑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살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지 못한다면 삶의 근본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고 예기하곤 했지요. 그래서 모두들 때가 되어 자신의 길 걸음을 정하고, 자연스런 인연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이고 그렇게 살고 있지요」

끝으로 全相伯동문은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들려줬다. (表)

「5년 학·석사연계과정」 도입

내년부터 조기 전문인력 양성

모교는 지난 3월 28일 「5년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에 따른 세부규정 논의를 8월까지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불리는 「5년 학·석사제」는 현재 6년 이상 걸리는 학·석사학위 취득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단축하는 제도로, 연세대·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의 전공이 동일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을 두고 있는 반면 모교는 관련 학과라면 학사대와 다른 단과대의 전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연대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 「5년 학·석사제」를 통해, 공대 컴퓨터학과 석사과정을 신청하면 5년만에 수학과 학사학위와 컴퓨터학과 석사학위를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게 된다.

金宇哲교무처장은 「학부에서는 기초학문을 전공하고 석사과정에서 응용학문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학·석사 연계과정에서도 곧 이 특같은 전공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5년제 학·석사제」를 희망

하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학점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4학년부터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모교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재 학사 1학30학점, 석사 24학점으로 규정돼 있는 이수학점을 낮춰줄 계획이다. 공대 韓氏九학장은 「이는 초기에 전문인력을 수급받기 원하는 사회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학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鄭雲樞총장

동경대 입학식서 축사

모교 鄭雲樞총장은 지난 4월 12일 열린 동경대 입학식에 동영상 축사를 보내 동경대 신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동경대가 모교 鄭雲樞총장과 하버드대 로런스 서머스(Lawrence H. Summers)총장에게만 동영상 축사를 요청해 이루어졌으며 모교 朴鍾根연구처장이 대리 참석했다.

鄭雲樞총장은 축사에서 「20세기에 두 차례 세계대전과 수많은 국지전이 인류에게 재앙과 고통을 가져 왔으며,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겪은 고통은 더욱 컸고 불행한 과거의 상흔은 한국과 일본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하며 「역사의 전환점에서 장차 국제사회의 주역이 될 동경대와 서울대의 신입생 여러분이 다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계사를 만드는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디지털 시스템」

중국 병원에 공급

모교 병원(원장 朴容炫)은 지난 4월 5일 중국 베이징시에 2007년 완공 예정인 제7인민병원에 모교 병원이 자체 개발한 전자차트 등 「디지털 진료시스템」을 공급하기로 중국측 병원 설립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최근 국내 민간 병·의원들이 합자형태 등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이처럼 국립대병원이 중국 의사장에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모교 병원은 또 제7인민병원의 한 병동을 맡는 식으로 의료기술 수출 작업도 추진 중이다. (李)

모교 소식

법과대학

인권 변호사 「故 趙英來홀」 헌정



법과대학(학장 安京煥)은 지난 4월 19일 「전태일 평전」의 저자이자 인권 변호사인 故 趙英來(69년 法大卒)변호사 기념홀 헌정식을 열었다.

법대 건물 5층에 마련된 기념홀에는 열람실과 자료실이 들어섰고 趙英來변호사의 관련 기록과 원고도 전시된다.

安京煥장은 「趙변호사는 70년대에는 학생운동·노동운동에 헌신한 민주주의자, 80년대에는 공익변론·인권변론의 선구적 길을 제시한 인권 변호사이며, 정법화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개척한 제아정신의 표상」이라며 기념홀 헌정 배경을 밝혔다.

美벤더빌트대와 학술교류 체결

모교는 최근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미국 벤더빌트(Vanderbilt)대와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는 鄭雲樞총장을 비롯한 모교 교직원 인사들과 벤더빌트대 클론 지(Cordon Gee)총장, 카밀라 벤보우(Camilla Benbow)교육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이를 바탕으로 모교는 조만간 정식

협정을 맺고 교수 및 학생, 연구원, 직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 및 연구협동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벤더빌트대는 1873년 설립돼 1백30여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미국 명문대학 중 하나다. 특히 공공정책 연구와 교육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정부 파견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등 우리 나라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의과대학

신임 학장에 王圭彰교수 선임

지난 4월 11일 모교 의과대학 학장에 신경외과학교실 王圭彰교수(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학장은 79년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모교 병원 부설 임상약학연구소 연구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王圭彰은 모교 의대 역사상 최초로 40대



연령의 학장이며 젊은 교수로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黃禹錫교수 후원회」결성

鄭총장 “제2의 黃禹錫 배출되길”



앞줄 좌로부터 金在哲·吳明·黃禹錫·鄭大濟 등문

지난 4월 20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모교 수 의과대학 수의학과 黃禹錫(77년 鄭大濟)교수 후원회 결성식이 열렸다.

金在哲후원회장은 인사말에서 「黃禹錫교수와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를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鄭총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는 지금 바이오산업을 놓고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BT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의 현실은 R

&D무자에 있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제2, 제3의 黃禹錫교수와 같은 과학자가 연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각계의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黃교수는 답사에서 「후원회는 특정인의 이름을 내세운 우리나라 전체 과학자와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성원의 상징적 표현」이라며 「선배로서 경험을 살려 후배 과학자들과 함께 미진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화학부 崔珍鎭교수

프랑스로부터 공로훈장 받아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崔珍鎭교수가 최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한·불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및 연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정부로부터 프랑스정부 공로훈장인 「아카데미 기사장」을 받았다.

연세대 출신인 崔교수는 1984

년부터 지난 20년간 프랑스 국립대학, 그랑제콜, CNRS 연구소, 기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崔교수에 대한 「아카데미 기사장」 서훈 결정은 지난해 10월 10일 프랑스 수상령으로 이뤄졌다.

“진료비 15% 할인해 드려요”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

보교 병의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吳秉熙(77년 鄭大濟)원장은 지난 4월 20일 열린 본회 제20대 회장단 상견례 행사에 참석해 「개인이라 시스템 및 전산 점검의 기간을 가지면서 수진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며 「최근 시스템 점검을 마치면서 수진 규모를 더욱 확충하고 동문과 동문 가족을 위한 할인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센터는 동문에게 15%, 동문 가족에게는 10%의 할인 혜택을 줄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문전용 예약진료 개설과 연 2회 정도 동문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동문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본회 재추신용카드 제시 또는 본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자료를 통해 동문임을 확인하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10월 15일 개원한 강

남센터는 건강진단만을 전문으로 하는 건강검진센터로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38층, 39층에 위치해 있다. 한 층에 MRI, Fusion PET 등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수진자들이 번거롭게 이동하는 불편함 없이 한 공간에서 모든 진단을 일괄적으로 마칠 수 있다.

특히 20여 명에 달하는 전담 교수와 국내 최고의 모교 병원 교수진들이 정확한 진단을 함으로써 진단 결과 이상 있는 수진자를 모교 병원에 신속히 연계시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남센터는 기존 건강진단센터와는 차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건강진단」에서 「프리미엄 건강진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특정 질환만을 집중 진단하는 「시스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예약 및 상담 문의: 2112-5500)

야구·럭비·미식축구부에 본회에서 1천5백만원 지원

본회(회장 林光洙)는 최근 모교의 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모교 야구·럭비·미식축구부에 각각 5백만원씩 총 1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올해 개최되는 럭비부의 동경대와의 교류전 및 야구부의 전국규모 야구대회 출전, 미식축구부의 부산대 전선 경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졌다.

徐廷鎭교수

생쥐 처녀생식 성공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徐廷鎭교수(76년 鄭大濟)는 지난 4월 22일 徐교수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벤처기업 (주)마이크로젠과 일본 동경농대 코노 교수팀이 공동으로 세계최초로 생쥐 난자의 유전자를 조작, 정자와 수정 과정 없이 난자끼리의 결합만으로 건강한 생쥐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물학계에서 이 같은 처녀생식(단성생식) 시도가 있었으나 단일 성(single sex)의 생식세포를 아무리 합쳐 놓아도 정상적으로 개체가 발생하지 못하고 결국은 발생 며칠만에 죽어버렸다. 자연계에서 단성생식은 벌·진딧물·물벼룩 등 곤충이나 어류, 민들레·욱스나물 등 식물에서만 관측돼왔다.

때문에 포유류에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하지 않고 정자나 난자 한쪽만 갖고서는 정상적인 개체 발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이자 상식이었다. 즉, 수컷이 진화적으로 정자에 유전적 각인(Genomic Imprinting)이라고 하는 기전을 발달시켜 난자끼리의 결합에 의한 출산을 막는다는 것이 기존 학설이었다. (李)

李奉振교수팀

항생물질 「렘타이드」 발견

약화대학 제약학과 李奉振교수(81년 鄭大濟·사진)팀은 지난 4월 6일 토종 개구리에서 항생 효과가 좋고 특히 내성균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항생물질 「렘타이드」를 발견,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팀은 이르면 3년 이내에 렘타이드 항생물질을 이용해 고체 형태의 항생제 개발이 가능하며 이후 먹는 약품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연구성과는 최근 세균 감염에 의한 질병치료를 항생제가 남용되면서 심각해진 내성균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특허출원중이다. 또 국제특허 출원,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 생체화학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건강을 지키는 법

불임 치료, 사회적 배려 절실

주변이란 아이를 원하여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해도 1년 이내에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임의 발생빈도는 약 10~15%로 생각보다는 많은 편이며,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을 늦추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임증의 원인으로서는 여성측 원인이 40%, 남성측 원인이 40%, 양쪽에 다 원인이 있는 경우가 20%다.

불임증의 진단을 위해서 남성의 경우는 간단한 정액검사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생식기관이 복잡하므로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나팔관조영술, 복강경검사 등 많은 검사를 해야 하며, 비용도 많이 들고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불임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고통받고 있다.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는데도 일단 여성이 검사를 다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남성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아주 비효율적이므로 검사를 시작할 때 남성이 먼저 하거나 남녀 동시에 하도록 해야 한다.

불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통틀어서 補助生殖術이라고 한다. 보조 생식술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꼽을 수 있다. 인공수정은 배란기에 튜브를 끼워서 자

金基哲
(83년 韓大卒)
함춘여성클리닉
대표원장



궁 속에 주입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제적이면서 임신 확률도 좋은 편이다. 시험관 시술은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에서 정자와 수정시켜서 수정란(배아)을 자궁 속으로 넣어주는 방법이다. 인공수정의 임신 확률은 시술 주기 당 약 20%이며, 시험관 시술의 경우는 약 35%로 아직은 만족 할 만 하지 못하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불임부부의 고통은 담보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불임으로 진단이 되면 임신에 성공하기까지는 대부분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불임부부들은 매일 찾아오는 좌절감을 견디며 인내하고 있지만 도중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우리는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불임부부 특히 불임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따뜻한 배려가 절실하다.

(연락처 : 522-0123)

4차 건강법

해년 마라톤 풀코스 5회 이상 완주

전구, 일, 재산, 성욕, 지위, 미래, 희망... 이는 독일의 시성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하고 난 만년에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사라져 가는 것들」을 차례로 쓴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더 사라져가고 점점 더 중요해 지는 것의 첫째가 건강이 아닐까 한다.

6·25전쟁 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끔 동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모아서 달리기 시합을 시키곤 했다. 왕복 약 4km를 뛰는 곳을 달려서 갔다 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인지 나보다 2~3살 위의 형들을 제치고 거의 항상 내가 1위를 하곤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아버지! 제가 잘 뛰나 봐요」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친께서는 「이놈아! 당연히. 내가 마라톤 선수였는데」 하시는 것이었다.

필자의 부친은 오늘날 모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2회이시고, 모친은 사범대학의 전신인 경성사범 1회 졸업생이시다. 부친은 대학시절 독일까지 마라톤 원정경기를 다녀오신 기록이 있고 모친께서는 학교 농구선수로 활약하셨으며 부부 모두 야외활동과 운동을 좋아하셨다.

부친께서는 평소 문악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건강과 체력을 강조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필자가 달리기, 등산, 수영, 스키 등 각종 운동과 야외활동을 즐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달리기가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됐다. 세계 어느 곳으로 출장을 가도 조깅회와 뭇은 꼭 가지고 간다. 직장 내에서도 점심시간 때 달리기를 하니 한 명, 두 명 따라하더니 이제는 달리기 동호회가 결성됐고 땀을 때는 3백여 명 정도가 함께 달린다.

우리 회사에는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환상의 코스」라고 하는 방파제가 있는데 평소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회사 방파제에서 직원들과 함께 10~15km를 달리고 주말에는 좀더 많이 달린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각종 마라톤 시합에 참가해 1년에 마라톤 풀코스(42.195km)를 5번 이상, 많을 때는 10

閔季植

(65년 工大卒)

현대중공업 부회장



번 정도 완주한다. 필자의 마라톤 완주시간은 요즘은 3시간 10분 내외가 된다.

어릴 때는 잔병이 많은 편이었으나 마라톤을 시작하고 나서 건강해졌다. 평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건강검진을 해도 30대 청년과 같은 신체라고 의사들도 놀라워한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1백5리를 달리는 마라톤과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살이 모두가 도중에 많은 역경을 겪게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체력은 국력이다. 달리기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기르고 কর্ম정체하게 생활해 우리 나라 국민 전체가 건강해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게 되기를 바란다.

추억의 창

10년 만에 받은 학부 졸업장

崔俊浩(56년 法大卒) 인천지방법부사 회법사

1946년 5월 당시 필자는 서울 청량리 막 구 법전교사에서 전분부 1학년을 맞았다. 그때는 군정기로서 초대 총장은 해리.B.웁스텐드 박사, 법대 초대 학장은 키가 초근간 하고 눈, 코가 반짝이는 高東潤(50년 文理大卒) 선생님이셨다.

전분부 A·B반은 예과의 성질을 띄어서 2년 수료 후 학부 1학년으로 오르게 됐었고, C반은 구제 전문학교 즉 취직 위주로 전공과목 교육에 치중해서 3년 졸업제의 마지막 장이었다. 필자는 나 이도 젊고 해서 A·B반을 택하게 됐다. 아마 A반이 법학과 신호, B반이 행정과 선호인 것 같았다. 청량리 교사에서는 학과 공부를 한 기역은 별로 안 나고 강당에서 매일같이 피톨이되는 소위 大案 찬성과 반대 토론만을 구경하는 것이 거의 일과가 됐다.

바이호로 해방 후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좌·우의 진영의 사상적 갈등이 예리하게 표출된 때여서 지도도입 삼급생들의 사자후는 모두 함으로 들을 만 했다.

이런 이간에 교사가 서울 을지로 사범 대학교 구내로 옮겨가게 됐다. 학생들이 책상과 결상을 매고 행렬을 지었다.

잠시 이렇게 보내다가 학교는 또 총로 5가 동승동 대학분부로 옮겨지게 됐다. 우측의 대학분부건물, 정면의 본관, 좌측의 도서관과 연구실, 이제 정갈 학교에 온 것 같았다. 당시 예과의 성질을 가진 A·B반은 교양과목으로 철학, 논리학, 윤리학, 심리학, 문헌사, 열강, 독강 등 백학만 만한 학과목이 줄지어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나중에 미국 대사로 가신 高光林(45년 京城法學部卒) 교수와 보사부 장관 및 외대 총장을 하신 朴衡道(44년 京城法學部卒)(독자)·安浩相(44년 京城法學部卒)의 시간엔 학생이 많이 모였던 것 같다.

朴衡道교수의 텍스트 첫머리에 요란한 강을 건너서 멀리 전선에 나가기에는 이스라엘 병사의 이야기가 있었다. 강의를 한참 진행하다가 갑자기 교수는 탁자를 치며 말했다.

「공부하기 위해서 어려운 경쟁을 풀



동승동 캠퍼스에서 아내와 함께

고 대학에 온 여러분, 서양은 양대 흐름인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변천사입니다. 이것을 알고 떠들어요. 좌도 좋고 우도 좋아요. 그러나 공부할 때는 우선 충분히 공부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교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도 안浩相교수는 꽃잎이 서서 「참」의 철학에 대해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뻔뻔하게 안경에 손을 대면서 학생들을 손가락질 하면서 쳐다보곤 했다. 또 다시 강의실이 열려졌다. 이쪽 담과 저쪽 담 사이에 구름다리가 놓여있

고 그 밑으로는 학교 뒤 낙산으로 가는 호젓한 길이 뚫려 있었다. 이 다리 위에 올라가 밑을 내려다보면 학교 앞 시냇가에는 개나리와 복단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었다. 책을 끼고 경성공업고등학교 시험소가 있는 교사의 종파살을 찾는다. 네 번째의 집마다.

이때쯤엔 대부분 학생들은 교시 등진로를 잡는데 진지했고 나 같은 사람은 좌우 함의 압박이 싫어서 용지로 입구에 있는 국립도서관과 소공동의 시립도서관을 많이 찾았다. 미친 듯이 책을 읽었다. 안만 읽어도 읽을거리는 계속 쏟아졌고, 그러는 사이에 진짜 전공과목은 소홀히 되어 어느 틈에 자기공부는 물을 건너간 형국이었다. 학부 3학년 때 6·25가 터졌다.

6월 28일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날에도 학교에 나왔다. 이학장으로 오르는 학교 남에 쉼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걸이놓듯 걸어놓고 마구 떠드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렸다. 잠시 기웃거렸다. 소위 인민재판이란 것이었다. 뻔뻔~뻔, 우리들이 배운 것들하곤 아주 판판이었다. 쓸쓸했다. 서로 소매를 당기며 집으로의 길을 재촉했다.

그 후 4년의 공백이 있었고 재입학 절차를 밟아 56년 봄에야 10년만에 학부 졸업장을 거머쥘 수 있었다. 도대체 내가 공부한 한 것인지 만 것인지 가늠이 안가는 학생 시절이었다.

新刊

■ 두 대의 양발 기게가
농인 풍경

—金垠成 著



금 음 계, 관계, 산업계, 일선에서 두루 거친 이수그림 金垠成(42년 京城商學部卒)의 고문

명예회장의 경영철과 인생이 야기가 담긴 자전 에세이.

양발 기게 두 대로 시작해 전국 3위의 섬유공장으로 성장시키고 경복제아시아상품전시회 이사장, 대구은행장, 제일은행장, 외환은행장, 산업은행 총재, 한 국은행 총재, 연세대학교, 연세연립회장, 삼성전지 회장, (주)대우 회장을 거쳐 이수그림을 창립하기까지의 도전과 성공 그리고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삼과 출판·값9,000원)

■ 골프를 쉽게 배운다

—金東輝 著



대한골프협회 경기위원장을 지낸 金東輝(48년 商大卒) 동문이 국내 처음으로 골프 룰에 대

한 해설책을 펴냈다. 에티켓과 매너에서부터 시작해 티잉 그라운드, 규칙, 바르게 드롭하는 법, 워터 해저드에서의 규칙, 핸디캡 결정법 등 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월간국제출판·값7,000원)

■ 무의미로부터의 자유

—姜學哲 著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종교철학 교수로 역임한 姜學哲(59년 文理大卒) 동문이 실천철학의

창시자인 독일 철학자 카이에그의 사상을 고찰한 책. 실존적 인간론, 실존적 시간론, 허무주의의 문제, 실존의 개념, 정치적 자유와 개인성 10개의 부로 나눠 카이에그가 평생 제기했던 인간과 크리스천과의 문제를 고찰했다. (동명사·값10,000원)

■ 한국안보의

영역·정책·정책

—黃炳茂 著



국립대 안전보장대학원 黃炳茂(64년 文理大卒)교수가 한국 안전보도의 장점을 분석하여 과

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 학술서.

한국 안보의 개념, 영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고, 한국 안보 정책의 심층적 연구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분단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인 북한의 산군체제와 지정학적 문제로서 한미, 동맹 관리의 재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보명사·값12,000원)

■ 백두고원에서 만난
희망의 돌을 품

—李永錫 著



대한상공회의소 상의역, KBS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중인 李永錫(70년 文理大卒)동문이

2000년 9월 제1차 남북한 백두산, 한반도 교차관광단의 일원으로 참가해 백두산 일대와 모함산, 평양을 다녀온 뒤 3년 만에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책으로 펴냈다.

교과산대에 있는 남북한 관계가 하루빨리 풀려서 남북간에 서로 오가는 길만이라도 더 넓게 열리게 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 담겨 있다. (한국경제신문·값11,000원)

公演

■ 파르테트21 정기연주회

—5월 26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朴容沃(81년 音大卒·한양대 교수)등문과 바이올리니스트 張惠熙(84년 音大卒·경원대 감사)등문이 경원대 김민희(바이올린)교수, 한양대 위찬주(비올라)교수와 함께 파르테트21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 하이든, 슈베르트, 야나체크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에슬기 586-0945)

■ 민병희 바이올린독주회

—5월 29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민병희(90년 音大卒·협성대 겸임교수·IN String Quartet 멤버)등문



이 5월 29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플란트 쇼팽 국립음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Sofia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이수한 민병희는 최근 비평가협회 회가 선정된 '오늘의 음악가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 드보르자크, 슈베르트, 그리그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에슬기 586-0945)

■ 김찬환 동요동화집

개구쟁이

—金昌完 著



가수 겸 탤런트인 김창완(75년 慶大卒)동문이 지금까지 앨범(13집)에서 선보였던 동요 30

편과 동화 「숲으로 간 아기 고양이」를 담았다.

동요 CD에는 「개구쟁이」 「산하마바지」 「야생의 산골」 등 17곡의 동요가 들어 있다.

金동문은 「작과 음반을 통해 어린이에게 나의 마음 속 풍경화를 전하고 싶었다」며 「이 노래들이 어린이의 깨끗한 마음에 예쁘고 고운 그림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공사·값9,500원)

(정리=安興美 기자)

등정

수상

▲**全兢烈**(48년 工大卒·유신교 퍼레이션 회장)=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받음.

▲**丁奇洙**(51년 文理大卒·프랑스 교육문화훈장 수훈자협회 한국협회장)=최근 프랑스대 사관에서 한국 인으로는 세 번째로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Palmes Academiques 최고훈장인 Commandeur 훈장을 받음.

▲**李炳九**(55년 醫大卒·전북 전주 이치과원장)=지난 4월 7일 열린 제32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무릎의치 보철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시한 생보자·영세민을 지원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河斗重**(56년 文理大卒·광주 과학기술원 석좌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음.

▲**鄭煥鎮**(59년 文理大卒·한국 과학기술원립원장)=지난 4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신산업경영대

상 시상식에서 경영문화대상을 받음.

▲**黃秉真**(59년 滋大卒·이화여대 명예교수)=오는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호암재단이 수여하는 제14회 호암상(예술상)을 받는다.

▲**金鍾鎮**(62년 文理大卒·한국 과학기술원 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음.

▲**金熙中**(63년 藥大卒·대한약사회 자원위원)=지난 4월 7일 열린 제32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약사회장을 받음.

거치면서 약물 오남용 및 미약 퇴치운동, 의약품업 정착노력을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朴勝德**(64년 大學院卒·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음.

▲**沈 勳**(66년 商大卒·부산은행장)=지난 4월 23일 롯데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가 수여하는 "2004 한국의 경영자賞"을 받음.

▲**李祥龍**(66년 藥大卒·대한변리사회장)=지난 4월 2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장영실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수여하는 제6회 장영실과학문화상을 받음.

▲**宋達眞**(68년 工大卒·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중비장을 받음.

▲**李錫玄**(68년 醫大卒·고려대 구로병원장)=지난 4월 7일 열린 제32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정형외과 발전에 대한 기여와 불우청소년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金有奎**(69년 醫大卒·모교내 과학교실 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받음.

▲**姜昌五**(71년 工大卒·포스코 사장)=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음.

▲**延元泳**(71년 商大卒·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지난 4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신산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획부문 관리대상을 받음.

▲**金東晉**(72년 工大卒·현대자동차 부회장)=지난 4월 23일 롯데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가 수여하는 "2004 한국의 경영자賞"을 받음.

▲**李孝榮**(72년 工大卒·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지난 4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음.

▲**任周煥**(72년 工大卒·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지난 4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신산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술부문 관리대상을 받음.

▲**金元培**(73년 工大卒·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받음.

▲**崔基鍊**(73년 工大卒·아주대 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중비장을 받음.

▲**申喜榮**(74년 醫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오는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호암재단이 수여하는 제14회 호암상(과학상)을 받는다.

▲**韓 郁**(74년 敎大院卒·육사 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받음.

▲**朴容基**(75년 工大卒·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받음.

▲**方建雄**(76년 工大卒·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받음.

▲**崔在天**(77년 自然大卒·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지난 4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받음.

▲**李崇源**(77년 師大卒·서울여대 교수)=지난 4월 30일 한국현대문학관에서 片雲 趙炳華詩인이 제정한 제14회

평문문학상(평문부문)을 받음.

▲**黃禹錫**(77년 醫醫大卒·모교 수의학과 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음.

▲**文國現**(77년 經大院卒·유한킴벌리 사장)=지난 4월 20일 국제여성봉사단체인 스포티비스트 한국협회로부터

"여성지위 향상賞"을 받음.

▲**千昌弼**(78년 農大卒·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장)=지난 4월 22일 열린 제49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 근정훈장을 받음.

▲**安圭里**(80년 醫大卒·모교내 과학교실 교수)=지난 4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천결재단과 한국여자의사회가 공동 수여하는 제14회 여의대상-길봉사상을 받음.

▲**李洙宗**(82년 師大卒·모교 물리학과 교수)=지난 4월 20일 한국인 최초로 독일 뮌헨트재단이 수여하는 베셀(Bessel)상 수상자에 선정됨.

▲**李正烈**(82년 醫大卒·모교 흉부외과교실 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받음.

▲**金斗熙**(83년 工大卒·동아사이언스 대표)=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포럼 진보장을 받음.

▲**權俊煥**(84년 醫大卒·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지난 4월 21일 모교 병원이 국제 과학 논문 인용색인(SCI)에 우수 논문을 많이 게재한 사람에게 주는 「우수논문상」을 받음.

▲**崔煥英**(84년 保大院卒·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지난 4월 7일 열린 제32회 보건학의 날 기념식에서 만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姜仁仙**(88년 社會大卒·조선일보 위생전문과판)=지난 5월 7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제21회 최은희 여기사상을 받음.

▲**尹錫金**(27기 AMP·웅진그룹 회장)=지난 4월 23일 롯데호텔에서 한국농협총회가 수여하는 「2004 한국의 경영자賞」을 받음.

▲**金顯友**(34기 AMP·경신공업 사장)=지난 4월 23일 롯데호텔에서 한국농협총회가 수여하는 「2004 한국의 경영자賞」을 받음.

▲**袁昌福**(39기 AMP·장성 대표)=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포럼 장 도약장을 받음.

▲**車重根**(51기 AMP·유한양행 사장)=지난 4월 20일 한국 기업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04 기업경영대상」 수상자에 선정됨.

▲**朴基澤**(8기 AIP·우영 회장)=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포럼 장 혁신장을 받음.

이동·선임

▲**尹鉉重**(57년 文理大卒·한국인문인포럼 회장)=지난 4월 26일 열린 한국인문인포럼 운영위원회에서 3년 임기의 회장에 재선임됨.

▲**金容煥**(59년 法大卒·前연변재판소장)=지난 4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4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 취임함.

▲**鄭明珠**(71년 文理大卒·UPS 대한통운 대표이사)=최근 UPS와 대한통운의 합작회사인 UPS대한통운 대표이사에 재선임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이사·본보 논심위원)=지난 4월 1일 방송 기자클럽 부회장에 선임되었으며, 29일 KBS 신관 공개를 로비에서 IMF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행사 백서 「그해 겨울을 뜨거웠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金鳳煥**(75년 新大院卒·한국광고주협회 상근회 위원에 선임됨)=지난 4월 21일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鄭錦星**(76년 社會大卒·모교 사회학과 교수)=지난 4월 13일 유원인 컨소시엄회 정회원회에 선출됨.

▲**朴龍浩**(48기 ACAD·환경시대신문 주필)=지난 4월 16일 「주」 대한공익법률정보원 회장에 추대됨.

▲**安鎮元**(6기 HPM·YTN-저널 편집위원·수상자 군종담판관)=지난 3월 25일 화산부대 장병고충처리담판관에 위촉됨.

행사·출간

▲**姜仁淑**(56년 文理大卒·건국대 명예교수·영인문화관 관장)=지난 4월 10일 서울 광화동 영인문화관에서 문인들의 대표작품 낭독회를 개최함. 또 5월 30일까지 문인들의 문방구와 서재용품 등을 모아 제7회 정기전시회(언어와 사물의 만남 - 작품의 서두와 문방사우루)를 개최한다.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가천 김재창 회장)=지난 4월 17일 인천분원대학드럼경연장에서 인천유니버시티 드 프로축구단에 부상선수 후속을 영입한 스승과 「꽃모미」를 기증함.

▲**安武雄**(62년 大學院卒·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상계

리조트 갤러리홀에서 金光東 나라정책위원장을 초청, 「한국보수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함.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인협회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4월 27일 한국 언론재단 기자 회견장에서 제 8회 한국언론대상 시상식을 개최함.

▲**金 燮**(64년 音大卒·모교 음대 학장)=지난 4월 20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베르벤, 루토스와 오프스키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개최함.

▲**李玉姬**(64년 音大卒·서울튜터앙상블 음악감독)=지난 5월 13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에서 서울튜터앙상블 제 3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함. 이

기반회를 개최함.

▲**趙永完**(70년 司大院卒·국민고충처리위원장)=지난 4월 27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아시아에서의 음극조단과 시민권 강화」란 주제로 제8회 아시아음부조단협회(AOA) 총회를 개최함.

▲**吳効斌**(71년 文理大卒·충북청원군수)=지난 4월 6~13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전시실에서 「하나 그리고 몇몇」이란 주제의 사진전과 영상 수필집 「개망초의 행복」 출판 기념회를 개최함.

▲**金在鉉**(73년 商大卒·한국생산성분부 회장)=지난 4월 20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유비쿼터스시대와 성공 비즈니스」를 주제로 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함.

▲**朴秉健**(77년 醫大卒·박동진 신경정신과병원장·울산미술사랑 공동대표)=지난 4월 18~25일 개원 22주년을 맞아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실에서 31년에 걸쳐 소장하게 된 미

▲**羅昇瑞**(88년 音大卒·테너)=지난 4월 20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니스트 羅秉淳(73년 音大卒) 등과 반주로 국내 첫 독창회를 개최해 팔코니에리의 「명량한 일술」, 베토벤의 「내 혼은 두려워 떨며」 등을 선보임.

▲**鄭善美**(91년 音大卒·수원고학대 강사)=지난 5월 11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모차르트, 슈베르트, 드뷔시,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함.

▲**朴載雄**(95년 美大卒·인연가톨릭대 객원교수)=지난 4월 20~3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갤러리 우드에서 파랑, 가지 등의 정물 작품으로 세 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金在鉉**(4기 AMP·한국무역협회 회장)=지난 4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보고 수 의학과 黃錫錫

미술이 있는 가족음악회

서양화가 孫文子등은 작품 전시

실내악단 肅音(대표 朴商演·77년 音大卒·비올리스트)이 주최하는 「미술이 있는 가족음악회」가 지난 4월 17일 오후 5시 경기도 남양주시 금남리의 서호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양화가 孫文子(66년 美大卒·갤러리내전 대표)등은 「五鯉二魚」 등 미술작품 전시와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연속곡집 Op. 39」, 白堊東(61년 音大卒·모교 작곡과 명예교수)

등문의 「인간이고 싶은 아나 지오」,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4중주 Eflat조 Op. 87」 등이 연주됐다. 피아니스트 조지현(90년 音大卒·단국대 교수), 비올리스트 金劉熙(92년 音大卒·노블레스 현악4중주단 멤버), 클라리넷스트 桂順植(92년 音大卒·수원대 겸임교수)등은 함께 출연했다.

날 신진 작곡가 정승재씨의 「소프라노, 플루트, 비올라, 첼로를 위한 주교의 기도」가 초연되었으며 모차르트, 베버, 멘델스존의 실내악곡을 선보임.

▲**朴聖泰**(64년 音大卒·한국의악사평론가회장장)=지난 4월 8일 서울클럽에서 2004년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 의대

朴相哲(73년 醫大卒)교수를 초청, 「오늘의 새 인식변화」라는 연제의 특별강연회를 개최함.

▲**安淸市**(67년 文理大卒·모교정치학과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이라크 파병, 국가안보, 그리고 평화연구」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회의를 개최함.

▲**柳柳根**(68년 文理大卒·前전주MBC 사장)=지난 4월 26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세 번째 저서 「아이디어를 빛의 속도로 전파하라」 출판

기념회를 개최함. 전시기간 중인 24일 「미술품 수집의 유형과 실제」라는 주제로 특강함.

▲**宋官浩**(80년 工大卒·한국인턴정보센터원장)=지난 4월 22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

해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청소년과 가족음악회」를 개최함.

▲**洪承南**(83년 美大卒·서울시립대 교수)=지난 4월 28일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노암갤러리(5월 4일까지)와 관운동 이화갤러리(5월 11일까지)에서 조각작품 전시회를 개최함.

▲**安永珠**(84년 美大卒·서울대교수)=지난 5월 5~11일 서울 종로구 관운동 인사아트센터에서 「꽃에서 - 꽃없는 도전」을 주제로 작품전을 개최함.

▲**崔真珠**(85년 美大卒·동양화가)=지난 5월 1~7일 대구 봉산동 송아방화관에서 「섬」을 주제로 여섯 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교수 후원회 결성식을 개최함. (홈페이지 www.wshwang.com) ▲**金英煥**(8기 HPM·전호식협회장)=지난 4월 20일 부산지방병참청 대강당에서 경찰 3백 50여 명을 대상으로 「상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함.

(정리=安興賢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힌 동문을 소개한다.

·최치근(03년 大學院卒)·신진아 씨=5월 22일 12시 30분.

·정만규(89년 自然大卒)·박영숙 씨=5월 22일 14시.

·정재현(00년 工大卒)·김지운 씨=5월 23일 12시 30분.

·김경분(84년 人文大卒)·김은진 씨=5월 26일 14시.

·조재규(00년 工大卒)·한예선 씨=6월 12일 14시.

△이희순^① △전광우^② △전정수^③
△정병호^④ △정정태^⑤ △정찬우^⑥
△채한우^⑦ △조학국^⑧ △지상진^⑨
△최성우^⑩ △홍현후^⑪ △홍성철^⑫
△홍용진^⑬

◆수미대 △김상돈^⑭ △박민택^⑮
△박호연^⑯ △백승기^⑰ △이도필^⑱
△장인호^⑲ △한진식^⑳

◆약대 △김진중^㉑ △김종욱^㉒
△김진우^㉓ △박시우^㉔ △박종길^㉕
△서석우^㉖ △송창진^㉗ △오성환^㉘
△이세복^㉙ △손준호^㉚ △신민우^㉛
△홍순언^㉜

◆음대 △강낙영^㉝ △김재미^㉞
△김현수^㉟ △김홍원^㊱ △이동남^㊲
△장태환^㊳ △조장민^㊴

◆의대 △김광수^㊵ △김동은^㊶
△김성덕^㊷ △김연기^㊸ △김용진^㊹
△김주현^㊺ △김진규^㊻ △김현우^㊼
△동명승^㊽ △맹국영^㊾ △박문갑^㊿

△박성태^㊿ △박조원^㊿ △서창배^㊿
△선우대^㊿ △손준호^㊿ △신민우^㊿
△안경희^㊿ △안재환^㊿ △유형배^㊿
△은희화^㊿ △이동훈^㊿ △이민호^㊿

△이태호^㊿ △이필우^㊿ △장문식^㊿
△장진태^㊿ △조수환^㊿ △지상봉^㊿
△최 경^㊿ △최경진^㊿ △최정연^㊿
△한예택^㊿ △한정희^㊿ △허준영^㊿

△홍경조^㊿ △홍효식^㊿
◆치대 △권오영^㊿ △김성룡^㊿
△김광영^㊿ △조주환^㊿ △김중우^㊿
△김원장^㊿ △박주호^㊿ △박승영^㊿

△신일규^㊿ △안정모^㊿ △유태영^㊿
△이경모^㊿ △이보재^㊿ △이서우^㊿
△이승우^㊿ △이재훈^㊿ △이정호^㊿
△장정일^㊿ △정강용^㊿ △정종선^㊿

△정형남^㊿ △조성직^㊿ △조유동^㊿
△주관용^㊿ △최정식^㊿ △한 영^㊿
△한광수^㊿ △허영욱^㊿
◆대학원 △남덕우^㊿ △정경진^㊿

△정기호^㊿
◆제대 △김진태^㊿ △이상덕^㊿
△장영민^㊿ △전도진^㊿ △최성훈^㊿
◆보내대 △민병진^㊿ △박창진^㊿

△손경애^㊿ △전태연^㊿ △최상진^㊿
◆사대원 △김정식^㊿ △오복동^㊿
◆대원 △최상진^㊿ △박찬호^㊿

◆한대원 △고충선^㊿ △남상우^㊿
△양서호^㊿ △이병희^㊿ △이재호^㊿
△장준호^㊿ △전진식^㊿

◆한대원 △박준배^㊿
◆AMP △백준환^㊿ △전정두^㊿
△정재순^㊿
◆ACAD △이상영^㊿

일 반

◆인문대 △강남규^㊿ △김광원^㊿
△이 건^㊿ △임승수^㊿ △최태영^㊿
◆사대 △권 일^㊿ △김동원^㊿

△김서우^㊿ △김희철^㊿ △남승수^㊿
△박원재^㊿ △박지현^㊿ △우태영^㊿
△윤필준^㊿ △이길호^㊿ △임 철^㊿
△주병준^㊿ △황병철^㊿

◆사대 △김민철^㊿ △김정권^㊿
△유태환^㊿ △조희재^㊿ △최중우^㊿
◆강조대 △정영명^㊿
◆장영대 △김희화^㊿ △지진우^㊿

△장승환^㊿ △조임식^㊿
◆강대 △강용규^㊿ △강현석^㊿
△강종열^㊿ △권분산^㊿ △권순덕^㊿

△김기태^㊿ △김동민^㊿ △김병민^㊿
△김병우^㊿ △김병진^㊿ △김성진^㊿
△김영진^㊿ △김용호^㊿ △김근^㊿
△김재일^㊿ △김기갑^㊿ △김종성^㊿

△김종우^㊿ △김정근^㊿ △김희준^㊿
△남궁석^㊿ △노조래^㊿ △문우준^㊿
△박진우^㊿ △박기진^㊿ △박기철^㊿
△박상혁^㊿ △박재범^㊿ △배영주^㊿

△백남식^㊿ △변영화^㊿ △손태원^㊿
△송원식^㊿ △신원기^㊿ △양종태^㊿
△양지현^㊿ △윤재식^㊿ △이필민^㊿
△이범철^㊿ △이상익^㊿ △이재희^㊿

△이예민^㊿ △이은택^㊿ △이원복^㊿
△이유진^㊿ △이은용^㊿ △이윤선^㊿
△이종용^㊿ △이충용^㊿ △이희남^㊿
△임보민^㊿ △장재명^㊿ △전상수^㊿

△정규영^㊿ △정동용^㊿ △정순권^㊿
△정재호^㊿ △정태호^㊿ △조규남^㊿
△조두환^㊿ △조명제^㊿ △조태호^㊿
△조현우^㊿ △주기태^㊿ △주영재^㊿

△최동재^㊿ △최병진^㊿ △한영호^㊿
△홍재호^㊿
◆농생대 △강대권^㊿ △강인석^㊿

△강인봉^㊿ △김영호^㊿ △김우석^㊿
△김재운^㊿ △김재희^㊿ △남중희^㊿
△문학봉^㊿ △민병문^㊿ △박기수^㊿
△박순조^㊿ △박원일^㊿ △박창규^㊿

△박정영^㊿ △사정진^㊿ △상용훈^㊿
△신동원^㊿ △오현승^㊿ △유서현^㊿
◆유재조 △이병현^㊿ △김우석^㊿
△이철근^㊿ △임무상^㊿ △임병기^㊿

△임용섭^㊿ △정용환^㊿ △정기수^㊿
△정문준^㊿ △정해영^㊿ △조영태^㊿
△조재명^㊿ △최용재^㊿ △홍종진^㊿
◆문리대 △권희방^㊿ △김광태^㊿

△김성이^㊿ △김경재^㊿ △김홍수^㊿
△박우익^㊿ △박윤수^㊿ △박형규^㊿
△배인희^㊿ △박병기^㊿ △서재진^㊿
△송현우^㊿ △산구원^㊿ △신대철^㊿

△심사수^㊿ △삼재명^㊿ △이복선^㊿
△이근남^㊿ △이병원^㊿ △이정순^㊿
△임동규^㊿ △임승준^㊿ △정문호^㊿
△장태현^㊿ △전도훈^㊿ △전민수^㊿

△정병학^㊿ △정영일^㊿ △정순영^㊿
△조용주^㊿ △최기동^㊿ △최동환^㊿
△황병우^㊿ △황와복^㊿
◆미대 △김서봉^㊿ △김윤화^㊿

△박연도^㊿ △파정숙^㊿ △원승덕^㊿
△장태우^㊿
◆법대 △강동호^㊿ △파무근^㊿

△구민화^㊿ △권경식^㊿ △권지용^㊿
△김우진^㊿ △김도자^㊿ △김준섭^㊿
△김태희^㊿ △조지훈^㊿ △문동후^㊿

△박동섭^㊿ △박동문^㊿ △박이환^㊿
△박종욱^㊿ △박지영^㊿ △박병우^㊿
△서진현^㊿ △신병훈^㊿ △신승욱^㊿
△신한수^㊿ △안병환^㊿ △엄동희^㊿

△윤국규^㊿ △이덕렬^㊿ △이민찬^㊿
△이병준^㊿ △이성민^㊿ △이해진^㊿
△이형진^㊿ △정동원^㊿ △정민조^㊿
△정명보^㊿ △최갑섭^㊿ △최신근^㊿

△최은배^㊿ △최창무^㊿ △한 경^㊿
△홍지호^㊿
◆사대 △강양희^㊿ △김광원^㊿

△김병수^㊿ △김정숙^㊿ △박용원^㊿
△박정현^㊿ △서원일^㊿ △최철중^㊿
◆약대 △조근환^㊿ △유정규^㊿
△이병규^㊿ △이상규^㊿ △이원근^㊿

△이정진^㊿ △전재수^㊿ △전희호^㊿
△전정철^㊿ △정우상^㊿ △정지웅^㊿
△하영준^㊿ △한경수^㊿ △한상준^㊿
◆산대 △고인석^㊿ △권성철^㊿

△최의성^㊿ △김정현^㊿ △김기영^㊿
△김길환^㊿ △김석현^㊿ △김영식^㊿
△김진현^㊿ △김한호^㊿ △유태환^㊿
△박진우^㊿ △심재경^㊿ △오정철^㊿

△윤길현^㊿ △이성철^㊿ △이민수^㊿
△이영기^㊿ △이정준^㊿ △이해익^㊿
△임지순^㊿ △전인호^㊿ △정기홍^㊿
△정재경^㊿ △채수환^㊿ △최병철^㊿

朴明潤목지장학회

석사과정 2명에게 연구비 지원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潤(76
년 保大院卒·관악회 이사)이사
장은 지난 4월 23일 모교 연건
캠퍼스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

에서 보건대학원
白南淵(64년 曺大
卒·68년 保大院卒)
원장, 황정보전학
과 趙耕德(91년 自
然大卒)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학년도 1학기
「朴明潤목지장학

회」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차등문은 석사과정을 밟
고 있는 朴珠玉·黃貞姬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했다.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새 회장에 朴室相동문 선출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
(회장 文憲一)는 최근 LG강남
타워 ORIOX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朴室相(9
기·월드로인트 사장)동문(앞줄
좌로부터 세 번째·10번 인터뷰

참조)를 선출했다.
同會는 2004년 주사업으로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로 했으며 체육대회, 동문업체
탐방, 회원수첩 발행 등을 실시
하기로 했다.

환경대학원

신임 회장에 郭決鎬동문 선임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丁榮
植)는 지난 4월 21일 매리터
호텔 레미스에서 정기총회를 갖
고 신임 회장에 郭決鎬(80년 環
大院卒·환경부 장관)동문을 선
출했다.

同會는 지난해 30주년 기념행
사를 개최했으며 정화사업으로

10명에게 6백만원을 지원했다.
물에는 분기별 조찬모임, 10월
가족 등산대회를 새로운 사업으
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2부 행사에는 건설교통
부 姜榮鎬장관이 특별 강연자로
참석, 「신국토정책 추진방향」
에 대한 강의를 했다. (南)

△최순원^㊿ △최윤철^㊿ △현의수^㊿
◆생태대 △김성희^㊿ △나희수^㊿
△손인화^㊿ △전영숙^㊿ △최미연^㊿

◆수의대 △김원경^㊿ △나필원^㊿
△신현정^㊿ △이강문^㊿ △황병수^㊿
◆약대 △최근환^㊿ △최정규^㊿
△하중서^㊿ △노성환^㊿ △이지우^㊿

△이예민^㊿ △조현민^㊿ △차정민^㊿
◆음대 △김정희^㊿ △박정민^㊿
△송병익^㊿ △안종현^㊿ △안형일^㊿
△이선이^㊿ △이해정^㊿ △정춘지^㊿

◆전대원 △박재범^㊿ △이종섭^㊿
△김성규^㊿ △김종박^㊿ △김진호^㊿
△남상환^㊿ △전영일^㊿ △민원기^㊿

△박용준^㊿ △박희욱^㊿ △백승남^㊿
△변영진^㊿ △성수현^㊿ △송만성^㊿
△유정호^㊿ △유 준^㊿ △유정현^㊿
△윤정현^㊿ △이무익^㊿ △이종하^㊿

△전형식^㊿ △주재식^㊿ △홍기석^㊿
◆지대 △강용선^㊿ △권오임^㊿
△김연민^㊿ △김현진^㊿ △김희봉^㊿

△양동규^㊿ △용호택^㊿ △유동우^㊿
△이병규^㊿ △이병윤^㊿ △이상봉^㊿
△이재은^㊿ △장도호^㊿ △장문성^㊿
△조영진^㊿ △차민희^㊿ △최기재^㊿

△한국영^㊿
◆대학원 △김문현^㊿ △김문열^㊿
△김현식^㊿ △박종철^㊿ △윤민재^㊿
△이경민^㊿ △이병주^㊿ △이재우^㊿

△전동환^㊿ △조차연^㊿
◆전대원 △박재범^㊿ △이종섭^㊿
◆보내대 △김종민^㊿

◆한대원 △박삼규^㊿ △이광복^㊿
△이동준^㊿ △조상호^㊿ △차정규^㊿
△하병도^㊿ △허성두^㊿

◆한대원 △남승식^㊿
◆AMP △강용은^㊿ △남승식^㊿
△강정식^㊿ △고시복^㊿ △고희선^㊿

△공덕수^㊿ △김 승^㊿ △김 호^㊿
△김광원^㊿ △김근중^㊿ △김규철^㊿
△김기영^㊿ △김나문^㊿ △김동원^㊿

△김동호^㊿ △김성봉^㊿ △김성복^㊿
△김세태^㊿ △김영조^㊿ △김주동^㊿
△김정수^㊿ △김정욱^㊿ △김주동^㊿

△김진현^㊿ △김정진^㊿ △김해삼^㊿
△남기욱^㊿ △남영우^㊿ △노광성^㊿
△노기호^㊿ △박기주^㊿ △박사욱^㊿

△박성근^㊿ △박영미^㊿ △박재순^㊿
△박정훈^㊿ △박종원^㊿ △박진수^㊿
△박태진^㊿ △박태호^㊿ △박영환^㊿

△박희순^㊿ △박희태^㊿ △배창환^㊿
△배홍기^㊿ △백문현^㊿ △백봉기^㊿
△서부국^㊿ △서정수^㊿ △서정학^㊿
△손대성^㊿ △손정수^㊿ △송영학^㊿

△송용환^㊿ △송형진^㊿ △시영길^㊿
△신동태^㊿ △신성우^㊿ △신일범^㊿
△상삼조^㊿ △상정수^㊿ △송왕선^㊿

△양승열^㊿ △여운태^㊿ △오세민^㊿
△왕기철^㊿ △유시수^㊿ △유재우^㊿
△유한섭^㊿ △윤대현^㊿ △윤성현^㊿

△이 석^㊿ △이강남^㊿ △이강재^㊿
△이건우^㊿ △이근철^㊿ △이대성^㊿
△이득호^㊿ △이민기^㊿ △이병권^㊿

△이병열^㊿ △이서명^㊿ △이수호^㊿
△이순재^㊿ △이순조^㊿ △이영식^㊿
△이영태^㊿ △이영호^㊿ △이재하^㊿

△이전길^㊿ △이종학^㊿ △이광민^㊿
△이현규^㊿ △임종아^㊿ △정기홍^㊿
△장복진^㊿ △장세환^㊿ △전 종^㊿

△전호남^㊿ △장건영^㊿ △장동익^㊿
△정범섭^㊿ △정선호^㊿ △정학선^㊿
△정희동^㊿ △조병식^㊿ △조한준^㊿

△진영현^㊿ △차광은^㊿ △최병선^㊿
△최상남^㊿ △최수일^㊿ △최임보^㊿
△최용호^㊿ △최재선^㊿ △최희태^㊿

△한규원^㊿ △한정국^㊿ △한희철^㊿
△허 민^㊿ △허신규^㊿ △허기표^㊿
△홍용표^㊿ △황복현^㊿ △황복희^㊿
△황영순^㊿

◆AMP △김일수^㊿ △김진규^㊿
△김형우^㊿ △박민영^㊿ △송정섭^㊿
△안정환^㊿ △이대원^㊿ △이형철^㊿

△임병훈^㊿ △한이학^㊿
◆ACAD △김정영^㊿ △김용성^㊿
△박영규^㊿ △오영우^㊿ △오정근^㊿

△원성희^㊿ △유재우^㊿ △이성민^㊿
△이홍식^㊿ △전병순^㊿ △최병민^㊿
△최순현^㊿

◆ABP △이성희^㊿ △전인희^㊿
◆SGS △김광우^㊿ △김정근^㊿
△박용하^㊿ △박종인^㊿ △임명수^㊿

△장태택^㊿ △정종원^㊿ △최 준^㊿
◆CHCN △김민미^㊿ △박정희^㊿
△박희철^㊿

◆APC △김상수^㊿ △김정현^㊿
△신정호<

동창회를 읽고

새 동창회관 서울의 명물되길

수월 소재 경기도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2부에 행정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모교에 대한 별반 추억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월 받아보는 동창회보는 동문의 한 사람임을 되새기게 해준 고마운 존재임을 틀림없다.

그리고 연례를 맞이하면서 모교에 대한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한편으로는 안성군수로 영전하는데 모교 출신이라는 점이 인조(?)했기 때문에 모교에 대한 애정이 새롭게 피어나는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동창회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올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받은 인상은 **열**을 수 없는 나의 소중한 기억이 됐다.

삼십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 여러 동문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더욱 인상에 남았던 점은 회의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점이었다. 상당히 짜임새 있는 모습에 동창회 발전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참석자 대부분이 나이 많은 동문들뿐이었다는 것이다. 동창회에 바람이 있다면 40~50대 동문들이 적극 참석해 동창회에 젊은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는 것인데 앞으로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란다.

林光洙회장의 공약 사항이었던 신관 건립, 특지방학급 확충, 동창회부의 쇄신 등 참 어렵고 힘든 공약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았고 그 모교에 치하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초심

趙 成 憲

(74년 行大院卒)

前인성군수



을 잃지 말고 동창회 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이날 모교의 鄭雲燾총장이 참석해 축사에서 서울대학교가 세계 10대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학사행정을 쇄신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입학정원의 축소, 타대학 출신 교수의 과감한 채용, 외국인 저명 교수의 영입, 그리고 대학원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면학에 전념하도록

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鄭雲燾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할 때 모교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욱 깊이 스며들었고 관악대상의 영광스런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을 때 동료들과 함께 우리 동문들의 훌륭한 활약상을 치하해주는 동창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여러 모로 모교를 아끼지 않는 동창회에 고맙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몇 가지 바라는 점들도 있다. 林光洙회장의 공약대로 마포에 새로 짓는 동창회관이 서울의 명물로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며 명실상부하게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끈끈한 연결 매체가 되길 바란다. 또한 동창회 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동문들의 신문고가 돼주길 바라며 동문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창회보에 참여하는 투고자가 됐으면 한다.

우리 동문이 정부 각 부처와 사회 문화 전반에서 엘리트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모래알 같다는 동문들의 안 좋은 비유를 떨쳐버리고 서울대인의 유대를 강화해서 서울대를 졸업하면 영원한 서울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아는 동문 있는지 꼼꼼히 살펴

끊임없는 변화의 성장 속에서 가끔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은 요즘! 동창회보를 읽어보면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선배님이나 동창, 후배, 모두에게서 좀더 나은 미래의 시대로 함께 여어질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동창회보의 어느 부분도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달에 한번 동창회보를 받을 때마다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나고, 때론 반가운 분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면 한참 동안 응시하게 되는데, 이런 원고침착으로 복권을 사 본 적은 없지만, 복권에 당첨된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나에게도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는 다른 동문들의 기교를 더욱 열심히 보게 될 것이다.

졸업연도를 따져보니 한창 동안 다들

어 지지 않는 입에, 명하니 학교에 다니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바로 엊그제 같기도 한데, 초고숙의 세월이 빛겨가며 필름이 돌아가고 있었다. 추운 겨울, 바람을 막기 위해 뒷걸음질 했던 일, 새벽부터 줄 서서 도서관 자리 말았던 일, 동아리 활동이 재미나 수업시간 빼고는 학생회관에 머물렀었던 일, **집**이 여의도 인에 광화문까지 좌석버스 타고 돌아왔던 일 등등...

졸업 후 학교에 가보니 늙어간 건물들과 성숙해진 후배들의 모습에 잠시 낯설었던 기억도 있다. 하지만 내 시야에서의 변화는 곧 적응으로, 변하지 않는 모교에 대한 정으로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동문들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기다리는 동문들의

金 鮮 熙

(85년 普大卒)

경기도립 오케스트라

부수석단원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동창회보에 문을 두드려볼까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물론 모든 동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 수 있는 동창회보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우선은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에서부터」라는 코너를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 대

학별로 나열된 이름 중에 혹시 아는 동문이 있는지 궁금해서였고, 이름 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반갑기 때문이었다.

거대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동문 모두에게 다시 역할을 해주는 「동창회보」의 역할을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그 가치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말미의 학교 운영위원장을 자내면서 자발적인 발전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그 학교에 도움을 줌으로써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배웠고, 어느 분야이든 지원이 따라야 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서울대인의 긍지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는 대변지 「동창회보」의 계속적인 발전과 아낌없는, 최향한 새로운 소식들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동창회보」 발행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